

CONTENTS

KOSCA LETTER Vol.6

코스카레터 제6호



06

협회 창립30주년 기념 해외산업시찰

PART 1

1. 권두사.....04
- 김종철 _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 백종헌 _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PART 2

2. 협회소식.....06
3. SPECIAL01 - 소통하는 문화공간.....13
4.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16
5. 신기술 소개 - 고효율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24



2015년 Vol. 06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PART 3

- 6. 전문건설인의 삶 26
 - 건설인 9호 이종윤 _ (주)우신에이펙 대표이사
 - 건설인 10호 박판용 _ 태영건설(주) 대표이사
- 7. 건설산업정보 - Part.1 30
- 8. SPECIAL02 -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37
- 9. SPECIAL03 - 건강지킴이 38
- 10. 건설산업정보 - Part.2 40
- 11. SPECIAL04 - 쉬어가는 유머 46
- 12.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48
- 13. 회원사 질의·응답 50
- 14. 특별기고 52
 - (주)성신창업 김홍수 대표이사
 - (주)이화기술단 이봉재 대표이사
- 15. SPECIAL05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62
 - 제3편 : 신소재 그래핀
- 16. SPECIAL06 - 그것이 알고싶다 64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금 전달

12



김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10



서용교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10

PART 4

- 17. 회원사 현황 66
- 18. 건설용어 바로쓰기 69
- 19.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70
- 20. SPECIAL07 - 이달의 경영어록 72
- 21. SPECIAL08 - 업무단신+4/4분기 주요일정 73
- 22. 회원사 참여 마당 74
- 23. 불공정행위 신고안내 75

01

권두사 MESSAGE

“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하는 열린 광장으
로서의 역할을 기대합
니다.”

”

김 중 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건설문화의 창조를 위한 귀 협회
의 소식지, ‘코스카레터’의 여섯 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한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전
합니다.

그동안 ‘코스카레터’는 유용한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협회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홍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신
기술·신공법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전문건설인의 경영과 실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인의 작은 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는 등 현장 목소
리를 생생하게 대변하는 열린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최근 정부의 ‘투자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건설 및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희망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소재 건설대기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
공경험이나 자금력에서 열세인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지역 건설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
도를 바로잡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는 우리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 도입을 비롯한 자구책 마련은 물
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건전한 건
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와
함께 관련 협회, 지역 건설업계 모두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한 상생발전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코스카레터’가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 협회와 전문건설인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건설인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코스카레터의 여섯 번째 발간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강국, 국민복지 향상,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물량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우리 전문건설업 관계자 분들의 그야말로 눈물어린 희생과 고충이 있었습니다.

코스카레터가 발간되면서 지역 건설인의 네트워크 중심에서 우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두보를 찾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나가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R&D(연구개발) 사업에도 많은 치중을 해 주시고,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이 전국 대형건설사에 치여 소규모의 지역지분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과 지역건설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김병철 회장님과 회원사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산 발전에 계속적으로 최대의 응원군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700여개 회원사 모두의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회원사의 권익향상에 계속적으로 이바지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지역건설인의네트워크
중심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백 중 현
부산광역시의회 원내대표



협회 소식



❖ 제회의 및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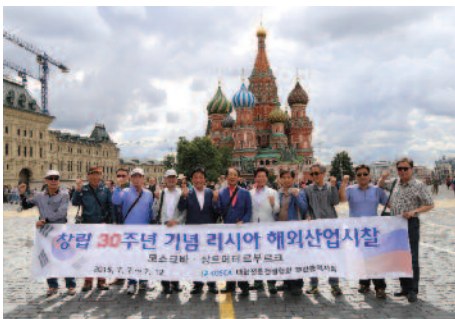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부산시회(회장 김병철)와 광주시회(회장 송성홍)는 7월 3일과 4일 양일간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양 시회 대표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합동 연수회는 지난 1993년 친선교류 결연을 맺은 이후 23년째다.

이번 합동 연수회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스포츠, 문화, 교육의 역동적 어울림 현장인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제전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을 참관하고, 담양 죽녹원과 장성 백양사를 탐방하며 상호간의 우의를 다졌다.

광주시회 송성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양 시회 회원님을 모시고 합동 연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광주시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동 연수회를 통해 양 시회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양 시회 회원사 모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협회 창립30주년 기념 해외산업시찰

부산시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원사 대표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7.7(화) ~ 7.12(일) 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해외(러시아)산업시찰을 개최했다.

시찰단은 재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성이삭 성당과, 카잔 성당,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겨울궁전)을 감상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크레믈린궁과 붉은 광장, 성바실리성당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러시아의 역사와 건축물을 연구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이번 해외산업시찰은 기존의 러시아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1991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발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협회 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이 됐다.



**하도급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강습회**

부산시회는 7월 16일(13:3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 소속 임·직원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에 대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호권 조사관의 강의가 있었으며, 우리시회 여찬모 자문노무사는 전문건설업체의 노무관리, 국민건강보험 부산지역본부 김금옥 차장은 건설현장 지도점검 및 건설일용 실무처리(건강보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습회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자유롭게 관련 제도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실내건축, 보링·그라우팅, 수중, 강구조물) 분과회의

부산시회는 7월 22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김병철 회장을 비롯한 우리시회 회장단 및 해당 분과위원장과 분과회 회원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실내건축, 보링·그라우팅, 수중, 강구조물공사업) 분과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실적 등 우리시회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경과보고를 하였고, 업종별(실내건축, 보링·그라우팅, 수중, 강구조물공사업)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 소식

2015년 제2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부산시회는 9월 3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부산광역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을 초빙하여 「2015년도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회 회원사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조찬세미나에서는 부산광역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이 「부산경제의 현황과 주요정책」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감사의 뜻으로 김규옥 부시장의 인물화(캐리커처)를 전달했다.



2015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는 9월 4일(12:30 / 해운대 돌아래채) 「2015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5회계연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협회 주요회의 및 행사일정 등 협회 주요 당면현안을 협의했다. 또한 이날 지난 5월 30일 협회 내 사회적 책임경영위원회 및 회원사와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한 네팔 대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 (Pray For Nepal)을 벌여 모금된 성금 9,661,870원 전액을 부산 유일의 국제구호단체인 (사)한끼의식사기금(이사장 윤경일)에 주거신속비용으로 전달했다.



2015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회의

부산시회는 9월 18일(11:00 / 다운가) 「2015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중앙회 제31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추천(안)과 주요회의 및 행사일정 등 협회 주요 당면현안을 협의했다.



박극제 서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는 9월 18일(11:30 / 다온가) 박극제 서구청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 회장단, 임원 및 서구 소재 10여개 전문건설업체와 서구청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구의 건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협회에서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서구청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 「3억미만 소규모 복합 공사 전문공사 발주」, 「서구 관내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지원」 등을 건의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중양군 지사장 및 부산시 건설관계관 간담회

부산시회 회장단 및 임원은 7월 15일(화) 18:30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본부장 및 건설관계관과 중양 1군업체 영남지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양군 종합건설업체 지사장 및 부산시 건설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만큼 종합·전문이 상생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중양 1군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

설본부장도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와 건설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종합과 전문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부산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양 1군업체 영남지사장(대표 정재욱)은 “부산지역에서 시공중인 대형건설현장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타지역 공사에 도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협회 소식

부산광역시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 회장단 및 임원은 8월 27일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부산광역시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 및 건설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일감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이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하도급 실태점검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일감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 회장단 및 임원은 7월 17일(17:20 / 새누리당 김정훈 국회의원(정책위의장) 부산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한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범위를 현행 30억 미만에서 2배인 60억 미만으로 상향조정토록 한 것에 대해 전체 종합건설업체 중 45%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크게 증가될 것이 자명하므로, 현행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전문건설업체 일감 확보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동부산관광단지 등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건설공사현장 및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실제 규모가 작은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더욱 많이 발생되고 이런 업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응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부산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법 현행유지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일감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용교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는 8월 30일 새누리당 서용교 국회의원 및 부산광역시의회 박재본 복지환경위원장, 오은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일감 확보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 등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건설현장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용교 국회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건설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회원소식

뉴마린엔지니어링(주), 우수 녹색인증기업 선정 및 산업부장관상 수상

지난 6월 26일 수중공사업 전문건설업체인 뉴마린엔지니어링(주) (대표 고성광, 임민석)이 우수 녹색인증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998년 창립해 등대와 등부표, 교량표지와 같은 항로표지제품의 설계, 제작, 설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항로표지 전문기업인 뉴마린엔지니어링(주)은 등명기 렌즈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LED구동에 적합한 정전류 구동회로부와 제어부 등의 요소 기술을 개발해 외산이 장악하고 있던 등명기 시장을 100% 국산화했으며, 등대 조명이 온도 상승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LED제품으로 녹색인증을 받아 항만청 납품에 성공하여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제3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9월 11일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전문건설인 2015년 제3차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회원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산행은 탁트인 부산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용호동 소재 이기대 갈맷길의 해파랑길과 동생말 코스로,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협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협회 소식

❖ 사회공헌활동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는 9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방문해 부산교육청과의 교육기부 결연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금 2,000만원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학습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 중 인문계 고등학생을 돕기 위한 무상 급식(석식)비로 지원금이 쓰이게 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폭 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01 힐링
상영

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기간 : 2015.10.1(목) ~ 2015.10.10(토)

상영관 : 영화의 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메가박스 해운대, 소향씨어터 센텀시티, 메가박스 부산극장

행사내용 : 야외무대인사, 오픈토크, 마스터 클래스, 아주담담, 핸드프린팅, 시네마투게더 등

개막작 <주바안(Zubaan)>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인도에서 능력 있는 독립영화제작가로 주목 받는 모제즈 싱의 감독 데뷔작 <주바안>이다. 또한 인도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구니트 몽가가 제작한 작품이기도 하다. <주바안>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자아를 찾아나서는 젊은이의 길을 따라간다. 편집의 가난한 집 안에서 자라난 딜셰르(Dilsher)는 성공을 꿈꾸며 대도시로 올라온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잠깐 만난 적이 있는 대기업 총수 굴차란 시칸드(Gurcharan Sikand)를 찾아가 그의 휘하에 들어간다. 딜셰르는 굴차란의 신임을 얻지만, 굴차란의 아들과 아내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오빠를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가수, 아미라(Amira)와 가까워진다. 온갖 역경 끝에 성공의 문턱에 가까워 진 순간, 딜셰르는 갑자기 삶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회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계기는 기억속의 아버지와 음악이었다. 자, 이제 딜셰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폐막작 <산이울다(Mountain Cry)>

멜로드라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주의적인 연출스타일과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 앙상블, 뛰어난 촬영 등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래리 양 감독의 <산이 울다>이다. 여류작가 거쉬핑(Ge Shui-ping)의 2005년 노신문학상 수상작인 동명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중국의 산골마을. 마을 청년 한총(Han Chong)이 오소리를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폭약을 갖 이주해 온 라홍(La Hong)이 잘못 밟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생긴다. 마을 어른들은 경찰에 신고 하지 않는 대신, 한총이 라홍의 청각장애인 아내 홍시아(Hong Xia)를 돌봐주도록 한다. 한총은 홍시아를 보살피면서 점차 그녀에게 이끌리기 시작하지만, 그들의 사이를 질투하는 과부 친화(Qin Hua)와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져간다. 그러다 홍시아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지고, 영화는 예상치 못한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02 힐링 부산

부산의 이곳 저곳 숨은 명소



영도 '절영 해안 산책로'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으로,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정말 아름답다. 실제 마을이 있는 언덕을 올라가 보는 것도 추천한다.



해운대 '철길'

좌측에는 해운대/송정 바다가 광활하게 펼쳐지고 우측에는 보기만 해도 피톤치드가 나올 것 같은 소나무 숲이 있다. 이곳은 경주와 부산을 잇던 동해 남북선이 201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이다.



송도해수욕장 '해상산책로'

송도해수욕장은 개장한지 100년이 넘는 대한민국 1호 해수욕장이다. 해양 산책로는 바다위를 걷는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한다. 아래를 보면 반투명 유리창으로 된 길사이로 파도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03 힐링
관람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 건축전

〈부분을 보면 전체가 보인다〉

스튜디오 지브리는 1985년 창립 이후, 수많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발표해 왔습니다. 작품에는 수많은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금번 전시회에서 출발점이 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 최신작인 〈추억의 마니〉까지, 작품에 등장하는 건축물 배경그림과 그림판, 미술설정 등의 제작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표적인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설계의 근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라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수많은 건축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매력은 애니메이션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억 속에 깊이 남아, 마치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상상을 주곤 합니다.

영화, 그 중에서 특히 애니메이션은 화면 속에 모든 세계를 그려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이상(理想)을 비추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상으로 만들어낸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공상과는 다릅니다. 현실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 등장인물의 생활과 시대를 충분히 검증해 디자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며 영화 속 건축물의 매력 또한 한층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많은 문화와 환경에 맞춰 지은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시회의 작품을 계기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물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 스튜디오 지브리

“나는 건물보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의 행동... 예를 들어 어느 도로 주변에 오래전에 문을 닫은 듯한 상점이 있고, 그 간판건축의 건물에 페인트가 벗겨진 싸구려 간판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낡고 초라해진 가게라도, 처음 시작했을 때 주인은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며 손님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 라든지, 그때 개업기념으로 손님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 라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고, 그러는 사이에 주인이 병에 걸려서 가게 문을 닫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대단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흥미진진하게 건물을 볼 수 있지요. 내 멋대로 망상에 잠겨 있을 뿐이지만요.

- 미야자키 하야오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 건축전

기간 - 2015.09.05(토) - 11.29(일)

장소 - 부산시립미술관 2F 전관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부좌현 의원 지방계약법 입법발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10인미만 건설 소상공인만 참여하는 입찰 제한 반대 건의

“역차별 야기·수주액 감소 등 불합리 초래... 현행 유지를”

부산시회는 6월 12일 일정금액미만 공사 입찰에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소상공인만 참여토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이 입법발의(2015.5.28.)한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앙회 통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부좌현 의원은 최근 일정금액미만 공사,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으며, 건설업의 경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다.

부산시회는 지역건설업체 보호는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수의견적 입찰 등 각종 제도가 충분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 구분은 무의미하고, 근로자수 보유에 따른 업체의 차별적 대우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을 야기시키고, 기존의 건설한 업체의 수주액 감소와 규제 추가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을 유지해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건설업 무등록 시공현장 점검강화 및 강력대응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후 시공

부산시회는 최근 일부 발주처 및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함으로써 건설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음은 물론, 적법하고 건설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 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5일 회원사로부터 사하구 소재 소규모 아파트의 재도장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건설업 무등록자의 시공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전문건설업 등록 후 시공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는 아파트 재도장공사로서 도장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페인트 도소매업자가 공사금액 3,800여만원의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및 사하구 소재 전문건설업체 현황 통보

부산시회는 7월 20일 부산시 사하구청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14년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 현황과 사하구 소재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안내하고, 관내 대형건설공사현장 등 하도급공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강화 등

부산시회는 7월 13일 국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이 대표발의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점검 및 조치 강화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기준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에 대한 점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증서 미증서 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 또한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명시하여 줄 것과 함께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을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은 타 법률(하도급법, 주택법, 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등)과 비교하여 너무 과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5천만원 이하로 현행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반대

부산시회는 8월 4일 최봉홍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통해 고용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시회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임금체불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률 또한 1%도 안되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은 무의미하며, 부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공사 발주시 해당 전문건설업자 도급 협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1인 수익계약 대상공사도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 건의

부산시회는 8월 6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인접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 1건의 전문공사로 통합 발주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제출 전문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발주기관에서 전문공사 발주시에 1건의 건설공사로 발주함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회원사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년을 기증시키고, 건전한 건설거래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어 공공 발주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준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보도블록 시공 품의 현실화 조속 건의

보도블록 시공 품의 현실화 건의

부산시회는 지난 2012년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보도용 블록포장” 품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시공량에 따른 인력품의 상향 등을 중앙회를 통해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이에 중앙회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보도블록 포장 품에 대한 현실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도블록 표준품셈 주기사항의 곡선부 할증이 본 품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구분	현 행				비고	
보 완	12-3 신설포장					
	12-3-3 저속도로포장					
	1. 보도용 블록 포장 (일당)					
	배치인원(인)		사용기계(1대)		시공량(m ²)	
			명칭	규격	형식	시공량
특별인부	2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소형 고압블록 포장 t=6~8cm	300	토 목
보통인부	4	굴삭기	0.6m ²	대형 블록 포장 50X50X4.5cm	270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30X30X6cm	370	
[주] ① ~ ② 내용생략						
③ 재료비(블록, 받침층 모래, 채움모래 등)를 별도계상하고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현 행	비고																				
보 완	<p>④ ~ ⑦ 내용생략</p> <p>⑧ 본 품은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블록 절단품이 포함되어 있다.</p> <p>⑨ 본 품은 지장물이 면적대비 5% 미만인 직선부 시공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곡선부나 지장물이 5% 이상인 경우 시공량을 4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p> <p>⑩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를 실시할 경우, 설치품의 50%로 계상한다.</p> <p>⑪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p> <p>⑫ 본 품의 재료비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100㎡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항상 및 크기</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 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형블록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블 록 모르타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X50X4.5cm</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 ㎡</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 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형 고압블록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블 록 모 래</td> <td style="text-align: center;">t=6~8cm t=4cm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108 4.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콘크리트 블록 줄눈모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X30X6cm 줄눈간격 3mm</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 ㎡</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0 0.2</td> </tr> </tbody> </table>	종 목	구 분	항상 및 크기	단위	수 량	대형블록포장	블 록 모르타르	50X50X4.5cm	개 ㎡	400 3	소형 고압블록포장	블 록 모 래	t=6~8cm t=4cm 기준	㎡ ㎡	108 4.4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콘크리트 블록 줄눈모래	30X30X6cm 줄눈간격 3mm	개 ㎡	1,100 0.2	토목
종 목	구 분	항상 및 크기	단위	수 량																		
대형블록포장	블 록 모르타르	50X50X4.5cm	개 ㎡	400 3																		
소형 고압블록포장	블 록 모 래	t=6~8cm t=4cm 기준	㎡ ㎡	108 4.4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콘크리트 블록 줄눈모래	30X30X6cm 줄눈간격 3mm	개 ㎡	1,100 0.2																		

구분	개 정	비고																										
보 완	<p>12-3 신설포장</p> <p>12-3-3 저속도로포장</p> <p>1. 보도용 블록 포장</p> <p style="text-align: right;">(일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배치 인원(인)</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용기계(1대)</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형식</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시공량(㎡)</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규격</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선부(지장물이 면적대비 5%미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선부(지장물이 면적대비 5%미만) 또는 곡선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 안부 2</td> <td style="text-align: center;">플레이트 컴팩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on</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형 압블록 t=6~8cm</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좌측 시공량의 4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통 안부 4</td> <td style="text-align: center;">굴삭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0.6㎡</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형블록 50X50X4.5cm</td> <td style="text-align: center;">270</td> </tr> <tr>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30X30X6cm</td> <td style="text-align: center;">370</td> </tr> </tbody> </table> <p>[주] ① ~ ② 내용생략</p> <p>③ 재료비(블록, 받침층 모래, 채움모래 등)를 별도계상한다.</p> <p>④ ~ ⑦ 내용생략</p> <p>⑧ 본 품은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블록 절단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절단 시 그라인딩장비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p> <p>⑨ 삭제</p> <p>⑩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를 실시할 경우, 설치품의 50%로 계상한다.</p> <p>⑪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p> <p>⑫ 삭제</p>	배치 인원(인)	사용기계(1대)		형식	시공량(㎡)		명칭	규격	직선부(지장물이 면적대비 5%미만)	직선부(지장물이 면적대비 5%미만) 또는 곡선부	특별 안부 2	플레이트 컴팩터	1.5ton	소형 압블록 t=6~8cm	300	좌측 시공량의 4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보통 안부 4	굴삭기	0.6㎡	대형블록 50X50X4.5cm	270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30X30X6cm	370	토목
배치 인원(인)	사용기계(1대)		형식	시공량(㎡)																								
	명칭	규격		직선부(지장물이 면적대비 5%미만)	직선부(지장물이 면적대비 5%미만) 또는 곡선부																							
특별 안부 2	플레이트 컴팩터	1.5ton	소형 압블록 t=6~8cm	300	좌측 시공량의 4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보통 안부 4	굴삭기	0.6㎡	대형블록 50X50X4.5cm	270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30X30X6cm	370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그러나 200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시 보도블록 시공 인력품(보통인부, 특별인부)이 대폭 하락한 후 현재까지 해당 인력품이 상향되지 않음으로써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관급공사를 실행단가 이하로 도급·시공함에 따른 적자시공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이런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보도블록 시공의 인력품의 상황을 중앙회에 재차 건의한 것이다.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사실 하수급인 통보 협조

하도급대금 조정사실 반드시 하수급인에게 통보를...

부산시회는 8월 24일 부산광역시 등 부산지역 64개 주요발주기관에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원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도급자가 설계변경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사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반드시 하도급공사에 참여중인 전문건설업체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율·금액 등을 하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종합건설업체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으로 발주처로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수급인에게 반영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내용을 별도로 통보받지 못해 이 같은 사실마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한 적정공사비를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한 것이다.



❖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협조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

부산시회는 8월 13일 소속 회원사에게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사 자재 사용 및 부산지역 소재 건설장비 임대, 그리고 부산 거주 건설근로자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부산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형 건설업체들이 도급·시공함으로써 하도급공사까지도 이들의 자사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주고 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생산업체, 건설장비 대여업체까지도 연쇄적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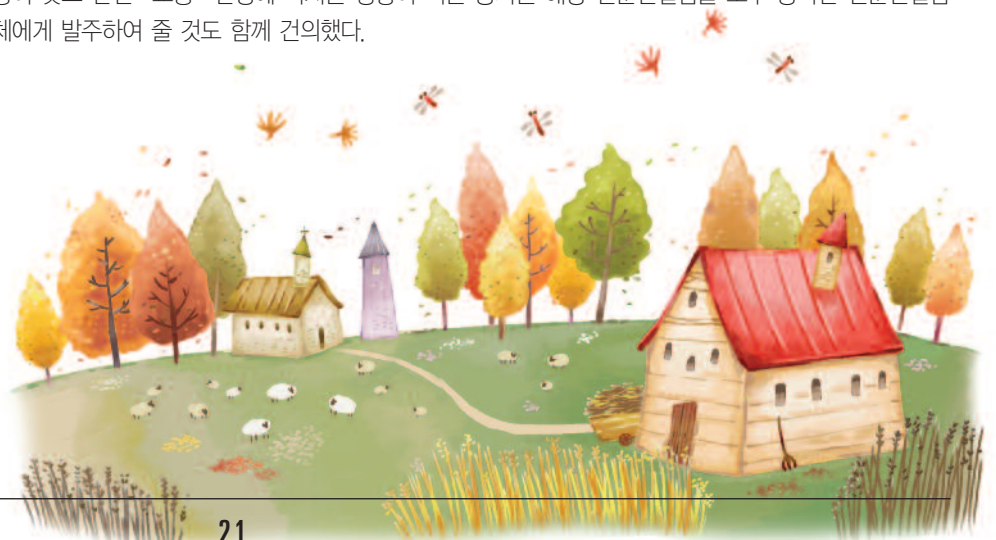
이에, 부산광역시와 지역 언론사 등에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부산지역 발주 공사에 70%까지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생산 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건설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는 부산시회 회원사에서도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와 장비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였다.

❖ 2015년 하반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확대를...

부산시회는 8월 13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부산지역 주요발주기관의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발주예정 공사를 파악하여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사에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2종류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전체 공사에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된 전문공사가 있을 경우 그 주된 전문공사로, 주된 전문공사가 없을 경우 공종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제작 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하여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

“단기적인 세액공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

부산시회는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4대보험 가입을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단기적인 세액공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에 따라 8월 18일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위해 매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원에 따라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도 일몰기한 폐지를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일몰연장도 폐지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간의 정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 시설공사 계약심사시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설계 우선 반영 협조

시설공사 계약심사시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설계 우선 반영 건의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시 점검 철저 요청

부산시회는 8월 26일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시 외국 수입 건설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근 부산시회 회원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일부 건설공사에 외국 수입 건설자재를 설계서에 반영함으로써 부산지역 생산 건설 자재를 외면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되고 있어 부산지역 건설자재 생산업체의 성장으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 공동현관 자동문설치공사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발주 협조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공사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발주 건의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업역준수를...

부산시회는 9월 3일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659곳에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공사 발주시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자동문 · 회전문 설치공사는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한 자에 대해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공사 발주시 세대내 인터폰 등과 연계된다는 이유로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을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발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자동문 제작 · 설치업체로 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업종별 건설공사 예시를 함께 안내하고 건설업 무등록자의 부실시공 근절을 통한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과 하자보수 미이행 등 입주민들의 권익침해와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시 업무영역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공업용수 관로공사 공구 분할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발주 협조

공업용수 관로공사 공구 분할하여 주세요

부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 참여 추진

부산시회는 9월 10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공업용수 관로공사 발주시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발주와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공사예정금액 7억원 미만으로 공구를 분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덕수정수사업소 시설 내부의 공업용 정수장 폐쇄 공사 후 「강서구 낙동강 수강교부터 강서사업소까지 연결되는 3.7km 구간 공업용수 관로 신설공사」를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종합건설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는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 지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다수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가 공구별로 집중적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됨으로써 공기단축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부산지역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가 동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예정금액 7억원 미만으로 공구를 분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신기술 소개



(주)에이비엠그린텍
기술연구소 부소장
정채봉

고효율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 '스마트 스트링 스위칭(Smart String Switching, SSS)' 기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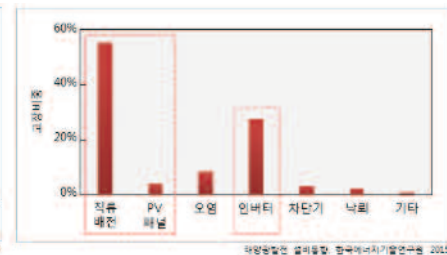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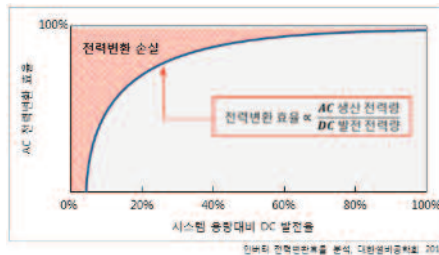
오늘날 인류는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온 탓에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녹지가 사막으로 변화되는 등 각종 기상이변을 통한 자연의 냉혹한 심판에 직면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벗어나서 우리 미래 자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주)에이비엠그린텍은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왔다. 2005년부터 태양 빛을 실내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재 사무용에서 산업용

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을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자체 태양광 발전소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지붕일체형 BIPV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발전시스템 구축 기술과 운용효율 향상기술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전력생산량을 기존 제품 대비 약 11%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스트링 스위칭(Smart String Switching, SSS)'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하여 최근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구성과 문제점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태양광을 받아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PV패널부와, 직류발전전력을 모아 인버터부로 전달하는 직류배전부, 모아진 직류전력을 한전의 교류 계통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인버터부로 구성되어 있다. 인버터는 입력되는 직류전력의 량에 따라 전력 변환 효율이 급속히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 엔진의 출력

효율이 저속모드에서 저하되는 현상과 유사한 원리이다. 즉, 일사 조건에 의해 PV패널부에서 저전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력 변환 손실이 급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류배전부 및 PV패널이 고장 나는 경우에는 발전 전력이 급감하고 인버터 고장 발생 시에는 발전소 전체가 운전 정지되는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마트 스트링 스위칭(Smart Sting Switching, SSS)' 기술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스마트 스트링 스위칭' 기술(이하 SSS 기술)은 인버터부를 PV패널부의 용량에 맞추어 소형 다중인버터들로 구성하고, 직류배전부에는 PV패널부 스트링과 인버터 사이의 연결을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칭 회로를 구성하여, 스트링별 전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발전 상황을 판단하고 각 상황에 알맞은 스위칭 연결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다. (특허 제 10-1445711 호 태양광발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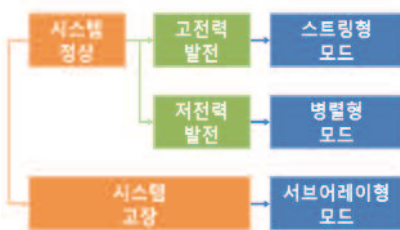


〈SSS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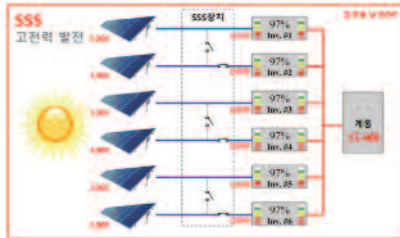
SSS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구동

SSS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기존의 문제해결을 위해 고전력 발전 시에는 스트링형 모드로 스위칭 전환하여 각 채널의 인버터를 모두 가동하고 저전력 발전 시에는 병렬형 모드로 전환하여 각 채널의 스트링 병합을 통해 일부 인버터만 가동한다. 고장 발생 시에는 서버레이형 모드로 전환하여 해당 채널을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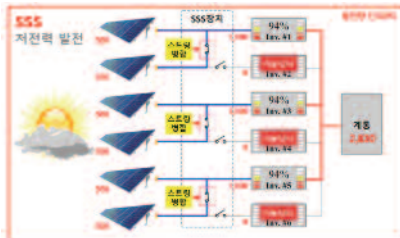
SSS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동분류



고전력 발전 시: 스트링형 모드



저전력 발전 시: 병렬형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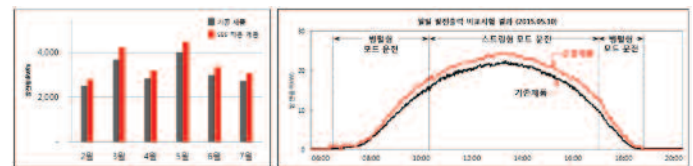


고장 발생 시: 서버레이형 모드



스트링형 모드에서는 스트링과 인버터의 1:1 매칭으로 채널별 분산 MPPT 제어가 가능하며, 병렬형 모드에서는 저전력 스트링 병합으로 인버터의 고효율 가동이 가능하다. 서버레이형 모드에서는 직류배전부 또는 인버터의 이상이 발생한 부분을 회로구성에서 분리하여 지속적인 정상시스템 가동이 이루어진다.

SSS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우수성



〈기존 제품 대비 SSS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발전량 비교시험 '15.02~'15.07〉

당사 태양광발전 60kW 시험현장에 기존제품(30kW) 및 SSS 적용제품(30kW)을 나란히 동일규격으로 설치하고 동시에 6개월 간 운영하여 공기기관을 통해 일일 생산전력량을 비교해본 결과 약 11% 운용효율 향상효과가 도출되었다.

SSS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조달우수제품 인증규격

최근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정된 SSS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조달품목으로 납품 가능한 규격은 설치 방법에 따라 일반형, 전선덕트형 및 건물 일체형으로 구분되고 용량에 따라 각각 3kW 단위의 6~60kW급으로 총 57가지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형은 노지 또는 건물 옥상에 구조물 지지대를 활용하여 시공되며 전선덕트형은 금속지붕패널 상단에 클립 및 전선덕트 일체형 레일프레임을 활용하여 밀착된 형태로 시공된다. 건물일체형은 태양광발전 모듈이 지붕 외장재 역할을 하는 일체형 시스템으로 차음/단열/방수의 기본적인 건축재 역할과 동시에 자연환기 통풍구조로 냉각을 통한 발전효율을 향상을 꾀하여 시공된다.

규격구분	일반형	전선덕트형	건물일체형
설치사진			
대표도면			
비고	노지 및 건물 옥상 시공 크레임 및 가해지는 구조물과 고정용가 활용	금속지붕패널 상단 시공 케이싱 판넬 및 우물 클립, 고정공법 활용	건물일체형 지붕 기준 봉가구조 단열재 유효한 시스템 활용

〈SSS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방식에 따른 인증규격〉

(주)우신에이펙

대표이사 이종윤



성공을 위한 다섯 손가락의 원칙

다섯 손가락의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온 전문 건설인의 삶

‘다섯 손가락의 원칙’이 있다. 엄지는 자신감을 뜻한다. 성공에 대한 믿음이다. 검지는 꿈, 다시 말해 명확한 비전을 가리킨다. 중지는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이며, 약지는 반지를 끼듯이 사람을 중시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인 소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다. 일년 365일 엄지를 곧게 세우고, 검지로 미래의 길을 뚫어보라. 마음이 흔들릴 때는 중지를 펴 각오를 다지며, 약지에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를 걸어두자. 그리고 소지로 혈서를 쓰듯이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

(주)우신에이펙 이종윤(75) 회장. 다섯 손가락의 원칙을 지키며 건삶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회사를 일궜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사업을 넓혔다. 집중화가 아닌 다각화를 택한 것이다. ‘우물을 깊게 하려면 넓게 파라’는 옛말대로. 그에게 블루오션은 새로운 시장에만 있는 건 결코 아니다. 기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최고를 창출하면 된다고 철썩같이 믿는다.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주역의 메시지가 그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익산 출신인 이 회장은 1960년대 특차로 한국해양대에 입학한 인재였다. 당시 전북에서 67명이 지원해 합격한 4명 중에 당당히 들었다. “파이프를 문 마도로스가 멋지더군요. 사관학교보다 매력적인데다 학비까지 공짜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오대양을 누비며 전문을 넓혔다. 다년간 기관장으로 일한 그가 바다에 대한 흥미를 잃을 무렵 제조업에서 손짓했다. 1974년 200명을 데리고 현대중공업 하청일에 나섰고, 4년 후 배 다섯척을 사서 상선회사를 설립한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자신은 상무로 일하면서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모셨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상선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큰 회사에 흡수돼버렸다.

다섯 손가락의 원칙으로 무장한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알루미늄 압출 사업을 시작했다. “원재료 구입차 방문한 중국 무한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직접 압출한 제품을 엄청나게 생산해내더군요. 상대가 안되겠다고 생각해 접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복합패널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에겐 경쟁력이 곧 블루오션이기에, 그야말로 스피디한 경영이다.

“경쟁력있는 제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을 보세요. 심중팔구는 메뉴가 단순하죠. 하나라도 잘 만들면 시장이 손짓하게 됩니다. 가격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갖춘다면 성공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이 회장의 말대로 우신에 이펙의 주력제품들은 엄청 잘 나간다. 초경량 건축외장재인 ‘알코월’과 부산경남의 유일한 내화구조 인장제품인 ‘글라스울판넬’이 대표 상품. 건축외장재는 여성으로 치면 화장품으로 생각하면 된다.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이 인기를 끌듯이 건물의 얼굴에 걸맞는 기능과 성능을 갖추는게 필수다.



우신에이펙은 그 까다로운 조건을 두루 충족한다. 고가의 독일 및 일본 제품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 부산 영화의 전당 커튼월과 세종시 정부청사 외벽,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외장 패널공사 등에 우신의 복합패널이 쓰여진 것만 봐도 알수있다. 그만큼 제품의 질을 인정받고 있다. 동남아와 중동 등 해외수출도 거침없다. 녹산산단 공장 두 곳에서 복합패널 및 그라스울판넬, 김해공장에서 육상 및 선박용 LED 조명제품을 생산한다.

젊은 시절 바다를 누볐던 경험을 그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녀온 나라만 70개 국을 넘을 정도로 해외 출장이 잦다.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다. 지구촌 관련업계의 부와 노동력 이동 상황을 꿰뚫고 있는 건 당연지사. “변화무쌍한 시장 추세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서 적극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는 개발시대의 호황을 더이상 기대해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 드넓은 시장이 펼쳐진 해외로 눈을 돌리라는 얘기다.

회사를 차린지 31년, 전문건설인으로 살아온 22년간 고생도 많이 했다. 그동안 거래처의 어음부도액만 130억 원에 달할 정도니 더 말해 뭣하랴. 이제 이 회장은 제품 생산에서 시공까지 윈스톱서비스 체제를 굳건히 다졌다. 좋은 자재와 남다른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2세 이성구 대표와 더 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내달린다.

그가 아쉬워하는 점이 있다. 외제 선호풍토가 심하다는 거다. 품질과 가격대, 공기와 납기 등 무엇하나 뒤질 게 없는데도 수입 건축자재를 고집하니 ‘원-원’이 되겠느냐는 게 그의 불만. 그래서 어려워도 상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강인한 정신력이 더해진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다. 다섯 손가락의 원칙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회장의 좌우명은 이렇다. **생즉사 사즉생 불변즉사(生即死 死即生 不變即死)**.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되,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참으로 비장한 각오가 아닌가.

글. 스토리박스 최원열



태영건설(주)

대표이사 박판용

착한 건설이
되는 간단한 길

공정한 경쟁으로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그는 아침형 인간이다. 그래야 인생을 두 배로 활기차게, 효율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다. 사실 건설인들은 대부분 일찍 일어난다. 별이 빛날 때 일터에 나가고 달보며 귀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에 그렇다. 태영건설(주) 박판용(66) 대표도 마찬가지. 그는 새벽 5시에 깬다. 그리고 장장 3시간 이상 부지런히 몸을 놀린다. 운동 전후에 목욕을 빠트리지 않는 게 그의 건강 비법이다. 잠도 5시간이면 족하다. 그리고 충분한 몸 단련으로 건강을 챙긴다. 술은 일주일에 소주 4병정도가 기본이다.

호적상 예순여섯이지만 그의 실제 나이는 예순아홉으로 일흔을 바라본다. 속사정을 들어보자. 경북 경산이 고향인 그는 아홉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가 안됐다고 한다. 당연히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터. 몸집으로 밀어붙여 어렵사리 학교에 입학한 후 면사무소에 신고했는데 직원 실수로 세살이나 적게 기재됐다고. "젊게 살라는 건 가 보네요"라며 너털웃음을 지어보인다.

박 대표는 스무살때 부산으로 내려와 외삼촌 밑에서 건축일을 배워 이제까지 하고있다한다.

공사판에 몸담은 ‘터줏대감’ 건삶인이다. 면허없이 마감공사를 하다 1980년도에 면허를 뒀다. 당시 전문건설 면허업체가 몇 되지 않았으니 1세대 중에서도 어른인 셈. “그땐 일하기가 좋았지요. 직원들이 시키는대로 일했고, 생산성도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노임이 확 뛰고 효율도 떨어지니 어려워요. 팀장급 차에 골프채가 실려있는 걸 자주 접할 정도니까 세상 많이 달라졌죠.”

박 대표의 태영건설은 국내 굴지의 롯데건설 협력사로 명성을 쌓았다. 9년 연속 우수파트너로 선정될 정도로 평이 좋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나는 바람에 건너뛰고 올해 타이틀을 되찾았다. 지역건설계에서도 마찬가지. (주)삼정과는 17년 넘게 거래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하고, 경동건설과 반도건설 등 부산을 대표하는 건설사들로부터도 굳건한 신뢰를 얻었다. 단 한번도 우리업체로 인해서 지적받을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라 하겠다.

수년 전 극심한 건설 불황이 덮쳤을 때도 대구지역 사업에 진출하는 등 선전한 끝에 지난해 매출 620억 원을 올려 전해보다 배 가량 늘리는데 성공했다. 고향 경산의 284억 원짜리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공사를 따냈고, 포스코건설로부터도 공사 3건을 수주받았으니 날개를 달았다고 할까.

그는 빚을 엄청 싫어한다. 그래서 부채라곤 티끌도 없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더블A가 이를 증명한다. 9개 등급 가운데 두번째로 높다. 어음(자재비) 발행하지 않은지가 3년이 넘었다. 원청업체들도 과거와 달라졌다. “대형건설사 부도가 잘 나지 않는데다 하도급 대금 지불보증을 받으니 큰 어려움이 없어요. 설령 어음거래를 하더라도 1개월짜리라 현금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박 대표라고 어려움이 없었을까. IMF때 20억 원 이상 어음부도를 맞았고, 3년 전에도 30억 원이 일순간 날아갔지만 3년 열심히 해서 회복을 했다.



이제 현찰 보유고도 3개월 정도 원청사에서 수금이 되지않아도 괜찮을 정도다.

관리비를 포함해 5% 수익이 보장돼야 공사를 맡는다. “빠빠지게 일하고, 손해보는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꼼꼼한 현장 점검은 필수다. 자재관리와 품질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업장에 가면 모든 걸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심지어 미세한 수평기울기도 감으로 알아채야 합니다. 안그러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어요.”

박 대표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산도 없이 무조건 공사파내기에 열중한다면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나쁜 건설’ 이미지가 굳어져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착한 건설’이 되는 길은 간단하다.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계를 지키면 된다. 한편으로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그건 담합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무면허 시공과 규격미달 자재 사용, 설계 임의 변경 등 부실공사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업체들은 준법 경쟁을 하고, 발주자는 ‘가짜 비용 절감책’인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싸구려가 아닌 경제성을 내세우는 입찰제, 예를 들어 최적이낙찰제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전문건설업이 활력을 되찾아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업체들도 불평하지만 말고 공정한 경쟁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믿음을 얻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박 대표의 말이 가슴에 외닿는다.

글. 스토리박스 최원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 22일자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이 금품수수 등에 따른 형벌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를 구제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6321호, 2015.6.22】

1. 긴급입찰 사유 구체화(제35조 제4항)

- (현행)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개정) 재공고 입찰의 경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이유)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기 위함.

2.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제118조)

- (신설)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을 본다.
- (이유)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의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함.

3. 시행일자 : 2015. 7. 1(수)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 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2015.6.30.)하였다.

1. 지연이율

- 〈현행〉 20% → 〈개정〉 15.5%

2. 시행일자 : 2015. 7. 1(수)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 30일자로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87호, 2015.6.30.】

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 참여 허용(제25조 제3항)

(현행)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유)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합리화 하기 위함.

2. 시행일자 : 2015. 6. 30(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기준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관련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로 통폐합 및 정비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468호, 2015.6.30.)

○ 관련 행정규칙의 통합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등 3개 규정 통합

○ 건설기술자 범위에 54개 기술자격 추가(별표1)

주변	기술자격
기술사	전기응용, 전자응용, 종자, 산림
기능장	목공예, 산림
기사	정밀측정, 전자,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티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전자, 토목제도, 포장, 석공, 건축도장, 도배, 비계,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목공예, 목재창호, 굴착, 지하수,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주변	기술자격
기능사	기계가공, 천공기운전, 포장, 석공예, 목공예, 금속도장,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환경, 화학분석

- 건설기술자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부여 가능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자격, 학력, 경력 등 신고 후 등급 부여
- 위 자격 소지자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로 즉시 활용 가능
 - ※ 단, 기계가공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환경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후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받아야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로 활용 가능함.

○ 기술자격 직무분야 복수인정(16개 자격)

-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 및 경력 관리시 업무 유사성을 고려 직
무분야 복수 인정 가능

자 격	중복인정분야
에너지관리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계 + 건설지원
수질관리 기술사(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토목 + 환경
수질환경 기사/산업기사(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토목 + 환경
거푸집 기능사	토목 + 건축
방수 산업기사/기능사	토목 + 건축
건설재료시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토목 + 건축
콘크리트 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토목 + 건축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2015.6.30.)

- 관련 행정규칙의 통합
 -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9개 규정 통합
-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련규정 정비
 - 공사비 원가센터 설립 근거 마련(제82조제3항)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이관(제97조)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민간동수로 구성(제98조)

3. 시행일 : 2015. 6. 30일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현장의 가설구조물에서 사망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6382호, 2015.7.6】

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제101조의2 신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높이 3미터 이상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공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 높이가 3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 위반시 제재사항

- 관계전문가의 확인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8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자 : 2015. 7. 7일부터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용역과 그 설계에 따른 건설공사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계약예규 개정 · 시행

행정자치부에서 6월 23일자로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하여 지방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7월 20부터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예규 제23호, 2015.6.23】

1. 지자체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의 수의계약 참여제한기간 단축

(현행)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 6개월간 수의계약 참여제한

(개정)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 3개월간 수의계약 참여제한

※ 결격사유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등

2. 시행일자 : 2015. 7. 20일 건적서 제출마감일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 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9호, 2015.8.5.)하였다.

1. 최저임금액

○ (2015년) 시간급 5,580원 → (2016년) 시간급 6,030원

2. 업종 구분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3. 적용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 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공포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11일자로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 · 공포하고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3469호, 2015.8.11】

1.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제9조의3 신설, 제84조 및 제91조 개정)
 - 신규 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인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함.
 - 기존 건설업자도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등을 감경 받을 수 있음.

2.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제28조 제3항)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제34조의2 및 제81조 등)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 계약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 추가 · 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 · 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99조 등)

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99조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건설업 신규 등록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추가 · 변경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시행일자 : 2016. 2. 12일 부터 시행(제28조 제3항은 2016.8.12, 일 부터 시행)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 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시행

행정자치부에서 8월 19일자로 실적공사비제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선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8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6491호, 2015.8.19.】

1. 공사 예정가격 결정기준 개선(제10조 제1항 제3호)

(현행)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결정.

(개정)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결정

(이유) 예정가격 결정시 사용된 실적공사비는 시장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 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상황을 고려해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하여 반영토록 개선

2. 지역의무 공동계약시 독점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 기준 명확화(제88조 제5항)

(현행)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이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위함.

3.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정비(제92조의2 제1항 제5호)

(신설)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이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4. 시행일자 : 2015. 8. 19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령 제32호, 2015.8.19.】

1.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추가(제30조 제5호)

(신설) 수의계약 가능 대상에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도 추가

(이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함.

2. 시행일자 : 2015. 8. 19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 시행

조달청에서는 9월 7일 시설공사 계약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신설,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 시기를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개정 주요내용

【조달청 시설총괄과-7479, 2015. 8. 31】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신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3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8조의3)

- 하도급 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 미신고 등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제출시기와 대상 명확화(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8조의4)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


3. 시행일자 : 2015. 9.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 법령정보 ⇒ 예규 · 지침 · 고시 · 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속

01




건설업의 상속 취득

02




상속신고서 제출(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 개시 60일 이내)

03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심사

04



건설업 상속 신고의 수리 및 상속 공고

05



우리협회 상속신고 사실통보서 제출

<제출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제조합출자좌수증명원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건설기술자(기능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 건물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장비 및 선박 보유 등록증 및 보유내역(철강재,수중,삭도설치,준설)

※ 부산사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 → 건설업 등록·관리 → 건설업 신규·양도·합병 등]

가을철 건강관리

- 환절기 건강 지키기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에는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 동안에 열 생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우리 몸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온차가 변하는 가을에 적응을 못한 몸이 체온 유지가 힘들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로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

1. 고른 영양섭취

감기로 인해 병원을 찾으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잘 먹고, 잘 쉬세요”라고 하는데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과 차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귤이나 감잎을 달여 만든 감잎차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2. 위생은 청결히

영양 섭취와 함께 위생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입을 통하여 세균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글이나 소금물을 통해서 입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단, 소금물은 살균 작용이 강해 자주 하는 것은 구강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외출 후 손 씻기를 더욱 잘 해야 합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기만 해도 비염이나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물 자주 마시기

환절기가 아니라도 우리 몸에 수분 공급은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환절기가 되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체내에 있는 먼지와 세균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 환절기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셔주고 1일 2리터 정도 마셔주면 좋다고 하네요.

4. 집안 청소를 깨끗이

환절기 질환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먼지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환절기에는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청소해서 공기 오염도를 줄여주는 게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환절기 피부 건강관리 방법

환절기 피부 건강관리에 좋은 음식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 탄력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사과, 석류, 대추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기억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있어 치매예방에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고 혈당이 올라가도록 도와 당뇨병 예방에 좋은 과일이라고 하네요.

특히 환절기 피부 건강관리에 좋은 펙틴 성분이 들어 있어 넓은 모공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석류는 골다공증과 피부노화 예방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서 골다공증에 좋다고 합니다.

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줘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풍부한 비타민이 피부 미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이 있어 노화방지에도 좋다고 해요.

저열량, 저지방 과일이라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과일입니다.

대추는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에 탁월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바쁜 현대인들의 피로 회복을 돕고 식이 섬유,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 노화 방지와 항암효과에도 좋으며 환절기 피부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면증 예방과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면역력이 부족한 분들께 아주 좋다고 합니다.

건설부조리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건설부조리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하세요

부산시회는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6월 23일 안내했다.

부산시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회원사들이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 도급 행위, 직영시공을 가장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행위, 건설업 등록 증 대여 행위 등 건설부조리 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미반영,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로부터 겪고 있는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부산시회는 상시적으로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등에 고발조치 하는 등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당요구 행위 개선 건의 안내

부산시회에서는 지난해 4월 중앙회 차원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요구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회원사의 64.7%가 실제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지난 6월 10일 우리협회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요구 행위 실태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업무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토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여 줄 것과 국토교통부 내에 「건설기계 조종사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6월 26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철저 안내

1개월 이상 사후정산 대상공사... 꼭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대상 공사의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건설현장에 한해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

(※ 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 별도임에 주의!!)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모두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시 보험료를 추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7월 1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사후정산대상공사의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 등 건설관련 법령 준수 안내

부산시회는 건설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제도 등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등록관청(시·구·군)에서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 별도 통보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힘에 따라 부산시회는 회원사에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위반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 위반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 건설업 등록 말소
 -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 행정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여한 건설업자와 상대방 모두)
 -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다.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실태조사 및 주기적 신고

- 국토교통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2014. 9월 도입)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 등) 미달 실태조사
 - 결산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따라 자본금 충족여부를 심사
 - ※ 부실우려자산 및 60일 미만 예금, 미수금 등을 집중 심사

- 건설업 최초 등록 또는 주기적 신고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업체의 경우
 - 자본금 충족여부 : 최근 3년간 정기연차 결산 재무제표 심사
 - 기술능력 충족여부 : 최근 3년간 기술인력 미달 및 보유자격의 적정성 심사
 -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 심사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여부 심사

- 등록기준 미달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200만원 초과)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보증서 미발급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
 -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및 제82조 제8호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지원사업」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사업주의 적정 인력수급 지원 및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전국 15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직업 소개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하는 건설현장 특화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건설현장 구인·구직 관련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및 연락처〉

권역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권역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수도권	서울센터	서울 양천구	전국 대표번호 1666-1829	광주	광주서부센터	광주 동구	전국 대표번호 1666-1829	
	서울동부센터	서울 강동구		전남	전남동부센터	전남 순천시		
	서울북부센터	서울 성북구		전북	전북서부센터	전북 전주시		
	경기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대구	대구서부센터	대구 서구		
	경기남부센터	경기 평택시		경북	경북동부센터	경북 포항시		
강원	강원영서센터	강원도 춘천시		부산	부산동부센터	부산 수영구		
충남	충남북부센터	충남 천안시		경남	경남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충북	충북청주센터	충북 청주시						

2015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 안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 3개 기종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 3개 기종에 한하여 수급조절을 시행한다고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36호, 2015.7.29.)함에 따라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회원사에 안내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5년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 2. 수급조절 기간 : 2015. 8. 1. ~ 2017. 7. 31.(2년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시행일자 : 2015. 8. 1일부터 4. 수급조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제한(금지) ○ 콘크리트펌프 :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등록 허용 (제한적 수급조절) |
|--|---|





건설업체 의무사항 준수 안내

건설공사대장통보 등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유의 안내

부산시회는 그 동안 회원사에 건설공사대장통보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해 수차례 안내하며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숙지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의 의무사항 준수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각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업체를 건설산업통합정보망 (KISCON)을 통해 재 선별한 후 2015. 8. 15(토)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등록관청에 행정조치를 통보하여 강력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부산 시회는 지난 호(5호)에 이어 재차 안내하였다.

〈건설산업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유 형	내 용	위반시 제재사항	분석주기
A.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 제22조 위반)	1.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미통보(허위통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이상 : 400만원 	분기
B.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법 제34조 위반)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매월
C.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법 제68조의3 위반)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D. 불법하도급 (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83조 위반)	4. 법 제16조(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7.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9.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10.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 10. 항목) 	

공공기관 발주시 특정제품 명시관행 개선 결과 안내

우리협회는 공공공사 발주시 현장설명서나 설계서 등에 특정제품이나 특정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부당한 발주시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공사의 경우 특정제품을 명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부당한 입찰 및 계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담당자 교육시 관련내용을 전파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공문을 시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 안내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피해를 입더라도 신원 노출로 인한 보복 등의 우려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협회와 함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2015.3.25)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불법·불공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제보센터' 이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 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제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구축되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익명신고 외에도 온라인 신고 또는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직접 통지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별도 반영 추진

부산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추진계획 발표

부산사회는 8월 21일 부산지역 118개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조경식재공사 발주시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비를 내역서에 반영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냉해, 한해, 수해 등 기후적 요인 및 현장 여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 했다.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조경공사 각 항목별 주기사항에는 조경식재에 따른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에서도 조경식재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조경식재 유지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식재 공사 준공 후 관리 부주의로 인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까지도 하지발생으로 보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지담보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풍수해, 냉해, 한해, 천재지변 등 기후적 영향과 각종 현장 환경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금액을 내역서에 반영해 주고 있지 않고 설계변경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업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청 등 주요 발주기관에 조경식재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비를 내역서에 별도 반영하고, 기후적 요인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용(경비 등)을 반영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조경식재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지난 2014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우리사회는 부산시에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건의한 결과,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조경식재공사시 유지관리에 대한 회원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업은행이 만나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더 큰 혜택을
건설하다

IBK Card
KOS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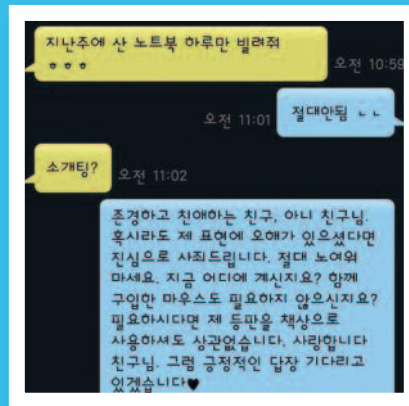




나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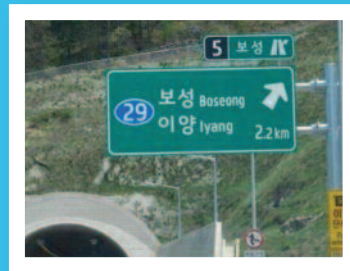
소개팅의 위력



돈있냐??



녹차 유명한데가 어디야?



왜? 딸기맛 샀냐?



게으른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은 그 남자가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소서!
그러면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당첨되지 않자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부탁이 정녕 무리였습니까?”라고
기도를 하니,

마침내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제발 로또라도 사고 빌어라!”

게으른 기도



못말리는 가족



도로를 질주하는 한차량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단속에
딱걸렸다.
차안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가 타고있었다.

경찰 : 속도위반하셨습니다.

아버지 : 신호위반 아니었어요?

경찰 : 그럼 신호위반도

어머니 : 그렇게 무면허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경찰 : 허걱! 그러면 무면허까지

할머니 : 애 그러게 흥친차로는 얼마못간다고 했잖아

손자 : 그러게 은행털고 벌받는겨...

유권해석

【질의_1】

폐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공사로 부터 "도계 관리자숙소 신축공사"를 부찰제에 의한 총액입찰방법으로 발주받아 86.4.25에 계약, 내역서를 제출·승인 받고 시공 완료하여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바, 이미 총액입찰방법으로 계약집행 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발주전) ○○공사 설계예산 내역서상에 일위대가표 계산 착오로 인하여 설계금액 일부가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

【근거】

회제-125-4512(1986.12.16.)

【참고】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참조

※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요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 가능.

【질의_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대상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가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원가내역서 상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관행상 단가계약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데, 상기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로라면, 단가계약공사 유무를 떠나 1개월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당연히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가계약 유무를 떠나 1개월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상기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가요?

※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1개월 이상 건설공사이나 발주자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는 건설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건설판례

【회신】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의 종류가 단가계약이라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으며, 문의하신 내용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4대 보험 적용 대상이라 사료되오니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질의회신(1AA-1508-131576, 2015.8.21)

【판사사항】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을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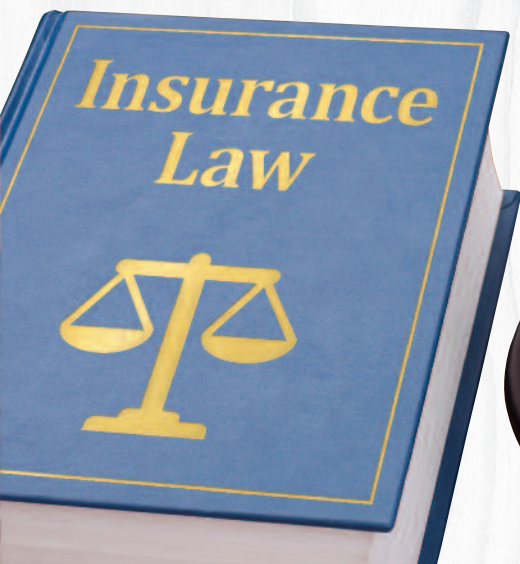
【재판요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을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상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공사비가 증가하였다도 간접공사비 및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는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상욱, 정재훈

【출처】

서울고법 2014.9.5. 선고 2013누33002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회원사 질의·응답

1.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 발급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대상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업자가 공사가 아닌 자재납품(설치) 등을 계약하여 진행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대여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인 경우에만 해당됨. 따라서, 건설공사가 아닌 자재납품(설치) 등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단, 자재납품(설치), 현장설치도 등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 건설 공사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예방할 필요가 있음.

2. 2,000만원 미만 포장공사에 굴삭기 운전기능사를 현장 배치기술자로 배치 가능한지 여부? 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를 기술인력 부족으로 계약파기 할 경우 제재 처분이 있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억원 미만 동일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공사와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종류의 공사, 또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롭게 행해지는 동일종류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기술자를 3개 현장에 중복배치 가능함.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별표5에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자를 배치할 수 있음.(※ 단, 상기 규정은 법정 최소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포기시 별도의 제재처분은 없으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6개월간 해당 발주기관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3. 포장공사시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등이 내역서에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37호, 2014.10.2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PE드럼 등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 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계상하는 비용으로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반영함. 또한, PE드럼,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등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사용 가능하나, 신호수, 유도자 등의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공사 준공 후 2년 정도 지난 공사인데 발주처로부터 퇴직 공제부금 정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산관련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퇴직공제부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3억원 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 건설공사, 공사에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5.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추징을 통보받은 바, 건설현장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기준 및 대응 방법은?

- 1개월 이상 건설공사로서 계약서에 보험료를 사후정산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건설공사 내역서에 보험료가 반영된 공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는 별도)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취득 대상이 됨.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하더라도 본사소속 근로자로 보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취득 대상임.

6. 5톤 덤프트럭 및 전동지게차를 임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음
- 덤프트럭의 경우 적재용량 12톤 이상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며,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인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됨.
- 또한 전동지게차의 경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으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됨.

7. OO 숲 조성공사와 같이 수목 등을 식재하는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조경식재공업 또는 산림법인 등록 업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처럼 법령이 다른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에 적격심사시 실적 및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3. 아.에서는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 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에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평가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을 달리하는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시 입찰가격만으로 평가함.

8.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시중은행에서 어음할인이 되지 않는 어음을 수령하였음.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할인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 법 위반행위가 아닌지 여부?

- 하도급법령에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중은행에서 할인되지 않는 어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될 수 있음.
- 하도급법 제13조의1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확인(2015.7.29)

특별기고



김 홍 수
(주)성신창업 대표이사

러시아 문화유적지와 러시아 근대산업시찰

‘대한전문건설협회 30주년기념행사’ 일환으로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과 회원사 대표 33인의 구성인으로 ‘러시아 문화유적지와 러시아 근대산업시찰’을 목적으로 7월7일 ‘부산출발-인천경유-상트페테르부르크(구.레닌그라드)-모스크바-인천-부산도착’ 6일간의 탐방이었다.

탐방기에 앞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잠깐 언급하자면 영토는 동으로 10,000Km, 남으로 5,000Km에 걸쳐 뻗어있으며 총면적은 17,098,200Km²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170배가 넘는 땅으로 영토가 차지하는 비중은 76%가 넘고, 역사는 키예프 러시아(862~1240)-몽골 때따라 지배시기(1240~1480)-모스크바 러시아(1480~1613)-로마노프 왕조와제정러시아(1613~1917)-소비에트러시아(1917~1991)-러시아연방은 1991년 옐친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1992년 이후 새로운 신생 러시아 시기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뿌썬(푸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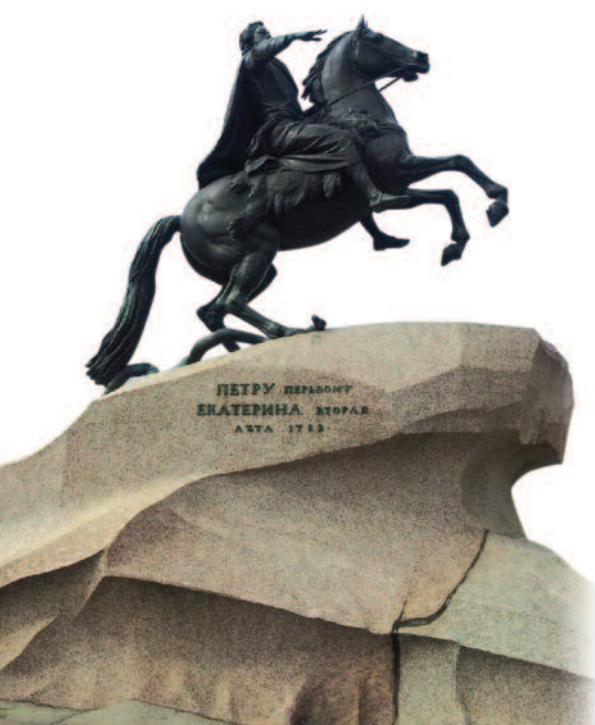
day 1 첫째 날

우리는 부산출발-인천경유하여 오후 21:30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후 호텔(홀리데이 인), 도착해 첫날의 여정을 풀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심장이다. 북위 60도에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핀란드 만에 맞닿은 이 도시에는 한여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백야(白夜)가 계속된다. 지금으로부터 꼭 300년 전 네바 강 삼각주의 늪과 섬에 지어진 이 ‘물 위의 도시’는 이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 우리에게 옛 소련(현 러시아)의 레닌그라드로 잘 알려진 이 항구도시에는 무려 86개의 강과 운하, 101개의 섬이 있다. 600개의 다리 ‘북방의 베네치아’, ‘제2의 암스테르담(네덜란드는 100개의 섬과 1000개의 다리)’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운하와 강 사이로 그 하나하나마다에 러시아 근세사의 애증이 짙게 스며들어 있는 화려한 궁전과 유럽풍의 각종 건축물, 대 사원, 성당들이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 문학을 사랑하는 이에겐, 특히 푸시킨이나 고골리,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애독한 사람들에겐 이 도시의 지명과 건축물의 이름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이들의 작품 대부분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곳곳을 배경으로 해 쓰여졌기 때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추앙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풍광은 이국적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만큼은 한국인과 놀라우리만큼 닮아 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예술품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제대로 보려면 러시아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이 있어야 한단다. 아무 사전지식 없이 보아도 좋지만 미리 정보를 통해 이해하고 보면 그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day 2 둘째 날

호텔(홀리데이 인) 조식 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100kg의 황금 동형지붕이 인상적인 러시아 최고의 성 이삭 성당으로 향했다. 성 이삭 성당은 건축학의 불가사의이자 모자이크 예술의 극치라고 평가받는 러시아 건축의 백미다. 크기면에서는 쿠푸왕의 피라미드(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쿠푸왕의 피라미드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 20년 동안 10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을 거라고 추산했다.)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건설기간, 동원된 인력, 고귀한 예술, 화려한 장식, 고가의 재료 등등을 따지면 피라미드보다 훨씬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라 길거리며 건물 앞이며 공원 등에 동상들이 엄청 많이 보인다. 그 중 니콜라이 1세 기마상은 이삭성전을 건축한 몽펠랑의 작품으로 기마상 아래에는 4명의 여인의 동상이 있다. 이는 그의 부인과 3명의 딸로 거울(아름다움), 십자가(믿음), 칼(용기), 창(지혜)을 들고 있다. 그리고 네바 강변에 세워진 표드르대제의 기마상(청동기마상)은 1872년에 팔콘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이 동상은 예카테리나 2세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무려 12



년이나 걸려 1782년에 완공되었다는데 역동성과 오직 말의 뒷발로만 서 있는 균형미는 정말 놀라울 정도다.

버스로 이동 중 바라본 밝은 햇살에 반짝이고 있는 금도금의 첨탑이며 멋진 중앙타워 건물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해군성건물은 1823년 러시아해군의 관리본부로 러시아 해군장교를 육성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카잔 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94개의 코린트식 기둥들이 반원형 회랑을 따라 늘어서 있다. 로마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을 본떠 10년 동안 지었다고 한다. 이곳은 기적의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카잔의 성모 이콘'이 보관된 곳으로도 유명한데 러시아인들에게 카잔 성당은 큰 의미가 있는 성당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정식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상트 정교회의 종본산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곧 뱃스키 대로다. 유럽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켜낸 장군의 이름을 따라 지은 대로라서 옛 해군성 건물부터 시작하는 길이 4.5km, 폭 30m가 넘는 쪽 뺨은 거리를 중심으로 이 도시 명소 대부분이 들어차 있다. 황제의 거처였던 에르미타주 겨울궁전을 시작으로 성이삭 성당, 그리스도 부활성당(피의 사원), 카잔성당까지 대로를 따라 이어져 있다. 한국으로 치면 경북공부터 송례문, 해인사와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몰려있는 셈이다. 1915년에 세워진 건물이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의 뱃스키 대로는 제정 러시아 시절 모습 그대로다.

겨울궁전(에르미타주)

겨울궁전인 '에르미타주'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불린다. 차이점이라면 박물관 앞 궁전광장이었다. 축구장의 7배(약 5만㎡)가 넘는 규모에 압도당했다. 내부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빈치, 렘브란트, 세잔, 고갱, 고흐, 피카소, 칸딘스키, 마티스까지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지만 훑어보지도 못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38점의 렘브란트 컬렉션은 엄두조차 못 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이곳에는 르네상스에서 근세에 이르는 예술작품 350만점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다. 1분에 한 점씩 봐도 다 보는 데 8년이 소요될 정도로 방대하다. 엘리사베타 여제가 가장 좋아하던 궁정 건축가가 여제를 위해 지은 궁전으로 방의 개수가 1천 개가 넘는, 유럽에서 가장 큰 궁전 가운데 하나이다.

낮설고 궁금했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근대화를 일군 집념의 예술도시임을 인정하게 되는 하루였다. 다음 여정을 위해 저녁식사 후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다.

day 3
셋째 날

셋째 날(09:00-21:30) 탐방을 시작했다.

여름궁전(삐쩨르고프)

네바강의 끝자락인 여름궁전에 도착하면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바로크 양식의 하늘빛 지붕이 인상적이었다. 방 전체가 5.6t의 보석으로 꾸며진 호박방은 사치스러움의 극치였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다 싶었다. 시내 중심에서 약30킬로 떨어진 곳으로 스웨덴과의 볼타바 전투에서 승리한 후 지은 궁정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한다. 표도르 대제의 명으로 지은 궁전으로, 궁전 메인에는 사자의 입을 찢는 삼손의





동상이 있는데 아침 11시 정각에 사자의 입과 주변 동상에서 분수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여름공전을 등지고 간단한 점심식사 후 네바강의 스팅크스를 찾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는 저녁노을이 아침 햇살과 합쳐져 밤 동안 내내 황혼이 빛나는 때다. 키메라(반인반수)와 비밀의 시간, 문자 그대로 도시를 가득 채운 신비로운 스팅크스 동상들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스팅크스는 이삭 성당이나 해군성 침탑처럼 이 도시의 상징이다. 세계 곳곳에 다양한 스팅크스가 여럿 있지만, 물가를 지키고 서 있는 제방 위의 쌍둥이 스팅크스는 순전히 상트페테르부르크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피터폴요새(토끼섬), 네바 강의 강폭이 가장 넓어지는 하구의 델타지역에 토기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곳에는 페트르부르크시가 최초로 건설되게 된 계기가 된 피터 폴(Peter & Paul, 러시아 말로는 페트로파블로프스키)요새가 있다. 이 요새는 스웨덴으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하여 건설된 요새로서 이 도시의 수호천사인 러시아 정교회의 사도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을 따서 피터 폴 요새라 명명되었다. 이름만은 좀 무시무시한 피의 사원(그리스도 부활 사원)을 찾았다. 피의성당 알렉산드로 2세가 암살당했다는 이곳은 러시아의 상징인 양파 모양 지붕과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기둥들이 19세기 말~20세기 초 러시아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내부 장식은 독특했다. 벽면과 천장 모두를 황금빛 모자이크로 빈틈없이 장식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당인 만큼 가톨릭과는 거리가 있었다. 러시아 전통양식으로 건축된 이 성당은 어느 성전과 비교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오랜만에 한식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 여유롭게 네바 강 민속유람을 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유람선 탑승시간도 짧고 볼거리도 그저 그랬고 민속공연은 되려 불편할 정도였다... 내일은 모스크바로 가는 오전 7시 삽산 고속열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숙소로 향했다.

에 있는 레닌그라드 역에 도착했다. 레닌그라드라는 지명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옛 이름이다.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 역이 없다. 우리가 출발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역은 모스크바 역. 이상하게 들린다. 러시아에서 역 이름을 짓는 방법이 우리와 사뭇 다르다. 러시아는 그 역이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역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지역의 이름을 출발하는 지역까지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모스크바 역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옛 이름) 역에 도착한 것이다. 기대를 안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각은 7월 10일 오전 11시 15분, 곧바로 답사를 시작하였다. 새벽기차로 이동한 관계로 피곤하지만 냉전시대에 미국과 유일하게 견주던 나라 러시아의 심장부에 마침내 입성한 지라 그 피로도 무색하게 부지런히 모스크바를 탐방하기 시작했다. 기차역에서 다시 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한 곳은 2차 세계대전을 기념하며 만들어 놓은 승전기념공원이었다.

승전기념공원에 도착한 우리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전 50주년 기념해인 1995년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각국정상들을 초대하면서 호화스럽게 재개장(1958년부터 존재)한 승전기념공원은 대통령이 있는 크래믈에서 차량으로 10~15분 거리에 있을 정도의 도심 속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너무 컸다. 모스크바에만 약 20여개의 광장이 있을 정도로 광장문화가 발달한 서양이지만 승전기념공원은 지나칠 정도로 컸다. 당연 모스크바에 있는 광장 중에 규모로는 가장 큰 승전기념공원이다. 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전기념공원 면적은 무려 40만평(135헥타르)이었다. 그 규모는 어디가도 찾기 힘든 기념공원이었다. 그 가운데 우뚝 서있는 승리의 탑의 높이에 다시 한번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그 높이는 소련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41~1945년, 1418일을 기념하며 141.8미터의 높이로 지어졌다. 탑 위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와 아기천사들이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는 팡파레를 부르고 있었다. 승리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와 러시아의 웅장함을 알게 된 후 앞으로 있을 일정을 생각하니 고무되었다. 그



day 4
넷째 날

넷째 날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 일행은 07:00 고속열차 삽산을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스크바로 출발하였다. 모스크바로 700킬로를 가까이 가는 동안 그 넓은 대지 속에 단 한 개의 산도 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 영토보다도 더 긴 거리를 가는 내내 오로지 평지만 있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다. 이 넓은 평원을 지나 5시간 남짓을 달려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

후 곧바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1935년 5월 15일에 첫 개통을 시작한 러시아의 지하철, 세계에서 10번째로 개통하여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지하철의 규모는 세계 3위이다. 우리가 지하철을 탐방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수치보다 그 깊이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러시아 지하철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지하 80~90미터의 깊이에 설치하였다. 지반이 약하다는 점과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가 됐다는 점을 미루어 봐도 그 깊이는 굉장히 깊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 러시아는 강국이구나라고 절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도착지점이 매우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깊은 곳에 지하철이 위치해 있다. 우리 한국보다도 빠른 속도의 에스컬레이터지만 무려 2분을 넘게 타고 내려가야 지하철에 도착할 수 있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던 우리나라,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때 지하 100미터에 기차를 구축했던 것이다. 지하철의 속도는 최고 시속 80킬로, 배차간격은 1~3분으로 매우 신속한 움직임이었다. 역간 거리는 한국보다 매우 길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면적에 4배가 넘는 모스크바 곳곳을 신속히 이동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 안의 모습이 장관이었다. 좀 더 보기위해 지하철을 타고 다음 답사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내려 다른 역을 시찰했다. 왜 모스크바 지하철을 지하궁전이라고 이야기 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다. 각 역마다 고유의 특성을 살려 상들리에를 비롯하여 천연석으로 모자이크 그림을 만들어놓은 모습들 그리고 화려한 조각들로 장식해 놓은 각각의 지하철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감탄을 뒤로 한 채 지하철에서 나와 다음 장소인 아르뻬거리로 향했다.

젊음의 거리 또는 산책의 거리라고 불리며 모스크바인들이 뽑는 산책로 1위에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리이다. 러시아왕조 초기시절 아랍상인들과의 교역장소로 사용됐던 거리가 계기가 되어 아랍거리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다. 러시아어식으로 아르뻬이라고 명명된 이 거리는 '아르뻬거리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속의 실제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푸쉬킨과 그의 아내 나탈리아 곤초로바(이하 나탈리아)의 동상이었다. 푸쉬킨은 다른 러시아 문학가들과는 수준이 다른 시인이었다. 러시아의 문학기는 푸쉬킨 전기와 푸쉬킨 후기로 나눌 정도로 푸쉬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의 활동시기 이후에 탄생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푸쉬킨으로부터 영감을 얻어다라고 할 정도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초중고등학생들은 모두 푸쉬킨이 쓴 글들로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느껴졌다. 아르뻬거리의 화가들과 악기연주가, 1인연극인들을 보며 러시아의 풍성한 표현의 자유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모습을 느끼며 그렇게 모스크바의 첫날이 저물어갔다.

day 5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넷째 날의 고무된 기분이 가시기도 전에 푸틴대통령이 직무를 보고 있는 크레믈린 궁으로 들어갔다. 시대를 잘 타고 난 것처럼 느껴졌다. 영원한 적국으로 남을 것 같았던 옛 소련 땅을 밟는 것도 모자라 소련시절에도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크레믈린 궁안으로 직접 들어갔다. 1812년 나폴레옹이 입성했던 길, 스탈린의 붉은 군대의 총사령관인 주코프장군이 입성했던 그 길로 입성하고 있노라면 어제의 그 고무된 느낌은 그저 평범하게 느껴졌다. 우리나라에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크레믈갈다 라고 표현하곤 한다. 그 크레믈이 바로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믈을 가르킨다. 그 안으로 입성한 후 일반 관광객에게 공개되어 있는 곳을 샅샅이 탐방하기 시작했다. 처음 우리를 반기던 건물은 당 대회 궁전이다. 그 너머로 지나가자 대통령 직무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비대칭 5각형으로 이루어져있는 건물 너무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기에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대통령 직무실인지도 모르고 지날 뻔 했다. 이곳에 러시아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생각하니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물려왔다. 그 위용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러시아 국기가 건물 중앙에서 펄럭이고 있었다. 그런





데 이상한건 대통령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굉장히 허술하게 느껴졌다. 경비요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테러 위험국으로서 경계가 삼엄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저격수들이 배치되어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테러와는 단 한 번도 타협을 한 적이 없는 나라. 게다가 자국민을 위협할 경우 경계가 아닌 선전포고를 하고 망설임 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 러시아의 정책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 직무실 인근에 배치된 저격수들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다. 그 안에는 현존하는 유물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황제의 종과, 황제의 대포가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쏘아보거나 울리지 못한 비운의 유물을 보고는 약간은 아쉬운 느낌도 들었다. 그 이후 단일 용도로서 크래를 안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원광장으로 들어섰다. 사실 현재 남아있는 크래를의 면적은 실제 있었던 면적의 3분의 1정도의 면적이다. 전쟁 중에 소실되고 파손되어 현재의 면적으로만 크래를을 지칭한다. 사원들로 둘러 쌓여있다고 해 사원광장이라고 지칭된 사원광장. 약 천년전에 들어온 러시아 정교가 이 나라에 뿌리깊이 박혀 있고 그 종교를 세상을 지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던 역사에 어우러지게 많은 사원들이 크래를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러시아의 국보급 1호인 성모승천사원으로 들어갔다. 화려하게 도금으로 장식된 내부와 높은 천장, 350킬로의 은으로 만들어놓은 상들리에 등을 보며 이 공간에 아름다운 선율이 담긴 아카펠라로 찬송가를 부르며 마

치 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을 넘게 자리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의 건물들과 소련시절 긴밀한 회의를 할 때 사용했던 비밀의 정원을 지나 붉은 광장으로 향했다. 600년의 러시아 역사를 기억하는 붉은 광장.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영상매체를 통해 본 붉은 광장의 크기보단 조금은 작게 느껴졌지만 크기가 무슨 상관이었는가. 이곳이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 모스크바의 심장부 크래를과 붉은 광장이 아니겠는가.

영상매체로만 봤던 붉은 광장에 서 있는 그 기분은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가슴벅차오름을 만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멋있었다. 붉은 광장에서 보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원인 성바실리 사원. 폭군 이반 4세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던 유일한 나라 몽골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기념으로 세워놓은 사원이다. 그 옆으로 한건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길게 놓여진 국영백화점 궁백화점이 있었다. 1893년 귀족들의 사고모임장소로 만들어진 후, 사회주의 시절에 재래시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러시아로 들어서면서 초고가 백화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귀족들뿐만 아니라 산책을 좋아하는 러시아인들의 습성에 맞게 산책로처럼 길게 설계되었다. 높이는 3층으로만 제한하여 3층에 올라가도 밑을 훤히 들여다 보며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궁백화점 내부에는 조목과 의자 및 분수대도 설치해 놓고 곳곳에 카페와 식당이 준비하다. 전 세계의 모든 명품이 들어와 있는 곳에서 산책을 하노라면 귀족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붉은 광장에서 조금 걸어 나와 황제들이 군사 훈련을 시켰던 마네주광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 낯익은 얼굴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의 붉은 군대를 이끌었던 총사령관 주코프 장군이었다. 대전 당시 소련의 활약상을 알고 보니 마치 알고 있었던 위인처럼 반가웠다. 미소협정당시 소련 측 대표로 와서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였기에 오묘한 감정을 느끼며 지나친 후 간곳은 무명용사의 묘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너무나 많이 희생자를 냈기에 그로인해 시체를 찾

지 못한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치

열했던 격전지 12개의 도시 이름을 적

어두고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있었

다. 이곳은 단순 관광지가 아닌

러시아인들의 성지처럼 여겨

지는 곳이다. 꺼지지 않는 불

꽃은 그들의 한과 자부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

다. 1년 365일 24시간동안

절대 꺼지지 않도록 천연가

스를 공급하면서 장총으로 무

장한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 옆에는 '1941년 1945년 조국을

위해 묻힌 자들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적힌 비석이 있었다. 얼마나 러시아인들이 한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순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





day 6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오전 09:15 인천 도착 후 김포로 이동, 도착
오후 01:00 김포 출발(기상악화)-서울역 도착-서울역
KTX 이동-부산 도착으로 모든 탐방, 답사를 무사히 끝
마쳤다.

기행문을 끝내면서....

화려한 역사를 가진 나라,
지구표면적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최초로 우주선과 우주인을 탄생시킨 나라,
세계에서 최초의 레이저탱크를 개발한 나라,
기초과학은 세계 3위 밖으로 넘어가 본적이 없는 나라,
스텔스 기술을 응용하지 않고 냉정하게 버리고 후회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그 스텔스를 잡는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
냉전시대에 미국을 견주었던 유일한 나라,
수없이 많은 첨단기술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숨어있는 나라,
북한과의 통일에 있어 중국을 강력히 견제 해 줄 수 있는 나라,
통일이 된다면 부산 또는 목포에서 출발해 영국까지 기차로 들어갈 수
있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미래에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생각을 해
본다.

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꺼지지 않는 불꽃쪽으로 다가갔다. 이제 막 결
혼한 그들은 자신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해준 자신들의 선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이곳으로 오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니 무엇인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그들은 그 곳에 꽃을 두고
기념촬영을 한 후 돌아갔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근무교대식
을 볼 수가 있었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12개의 도시이름이 적힌 무명용
사의 묘를 지나 근무교대식이 이루어졌다. 징병제로서 의무군복무기간이
1년인 러시아이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키는 근위병들은 예외다. 모
병제이며 2년을 근무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많아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본인들은 선조를 지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굳은 군대생
활을 기꺼이 하는 근위병들을 보니 존경심이 생겼다. 모스크바 중심부를
벗어나 외곽지역이 있는 마지막 답사장소인 참새언덕과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로 향했다.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웅장한 스케일과 우리나라와 다른 풍경
들을 보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소련이나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
각들은 잘못된 것 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새언덕은 모
스크바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서 모스크바 전
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지만 그 높이는 해
발 200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지역이 워낙 낮은 지역이기에 모
스크바의 웅장한 전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뒤로 마치 옛 성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본관 건물이 서 있었다.
스탈린 양식이라고도 불리우며 마치 중세시대 성을 연상케 하는 모습은
정말 거대했다. 대학교 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며 기숙사로도 사
용이 되는데 학기 중에 본관건물 안에서만 거주하는 인원이 무려 만명
이다. 그 수치만으로도 얼마나 거대한 건물인지 느낄 수 있었다. 현재까
지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탄생시킨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는 명실 공히
러시아 제 1대학교이다. 소련이 붕괴된 직후 세계 대학교 순위에서 10위
권 안에 드는 훌륭한 대학교였으나 지금은 30~40위권정도에 머물고 있
다고 한다. 12명을 노벨상 수상자들의 석상들을 보며 수치로 대학교를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소련은 분명 이념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나라임에는 분명하나 그 안에 있는 기술력과
역사들은 훌륭했다. 차량으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들어
갔다. 우거진 숲들 사이로 약 50여개의 건물들이 준비해 있는 모습을 보
니 소련 시절 교육, 주택, 의료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가 아닌가
싶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러시아와 소련, 그리고 다시 러시아라
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러시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

짧다면 짧은 탐방이었지만,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해 회원
사 33인 대표분들 모두 무사하게 탐방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게 무엇보다
기뻐하는 점이다. 감히 기행문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떠올리기에 는 부
끄러운 필력이다 러시아에 대한 지식도 짧고, 문장력까지 뛰어나지 못해
탐방 중 몇 마디 글썽거린것과 어느 분이 쓰신 러시아에 관한 책을 보며
내 기억과 메모를 합성시켜 썼다는 점을 理解하고, 감안하여 읽어주면
고맙겠다.

주식회사 성신창업 대표 김 홍 수



특별기고



이 봉 재
(주)이화기술단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러시아 해외산업시찰을 다녀와서

1. 출발하며

부산시회에서는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원사의 견문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유라시아의 대국인 러시아를 산업시찰하기로 하였다.

17세기 초 표트르 대제가 건설한 신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폴란드로부터 독립한 1612년 이후 건설되기 시작한 크렘린 궁을 향하여 7월 7일 13시 30분 김해공항을 이륙하였다. 인천공항에서 17시 55분 출발하여 9시간 35분 비행 끝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하여 호텔에 투숙하였다.

2. 일정

Wednesday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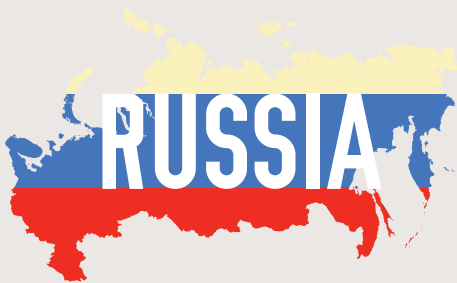
7월 8일 (수) 맑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러시아 최고의 성 이삭 대성당을 외관 관람하였다. 습지인 페테르부르크에 거대 석조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예술가는 몽페랑이란 프랑스사람으로, 앞의 건축예술가들이 2번이나 실패한 건축물을 완성하였다. 기초 공법을 그때 당시 획기적으로 길이 6.5m짜리 나무말뚝을 뿅뿅이 박아 군말뚝을 형성함으로써 습지에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다하니 1710년대 건축기술로서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이삭 광장 가운데 위치한 청동기마상은 그 자태가 역동적이다. 황제 니콜라이 1세의 기마상인데 뒷다리 둘로 땅을 짚은 채 마치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춘 듯하다. 광장 옆에 위치한 아스토리아 호텔 건물은 유럽풍으로 지어졌지만 주변 러시아 고전주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제카브리스토프 광장으로 옮겨 표트르 대제의 기마상을 관람하였다. 이는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동상이자 페테르부르크의 상징이다. 예카찌리나 2세 여제가 표트르 대제를 추모하여 프랑스 조각가에게 의뢰하여 헌정한 작품으로 러시아의 대표적 청동기마상으로 자랑되고 있다. 기념으로 청동기마상 모조품을 구입하였다. 해군성 건물이 금빛 뿅뿅탑을 뿅내며 서있었다. 넓은 정면을 가진 건축물은 힘 있어보이도록, 단조롭지 않고 생생한 모습으로 꾸민 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건설인으로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바로 인접한 알렉산드로공원은 시민들의 아름다운 휴식처로서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공원 곳곳에 세워진 조각상들은 물론 명망 있는 인물들이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었다는 것이 예술과 일상생활이 함께하는 러시아 문화인 것 같았다.

넵스키 대로에 인접한 까잔성당은 러시아 건축예술가에 의해 러시아산 건축 재료로 지어진 아름다



운 성당으로써 나폴레옹 침략에 맞서던 시절, 러시아 민족의 성소가 되었다. 전장에 나가던 병사들이 이곳에 있는 까잔 성모 성화 앞에서 기도를 했고 전쟁에서 노획한 적군의 기치들을 성당에 전시하고 전쟁 영웅들의 동상을 이곳에 건립하였다. 러시아 민족이 숭배하는 까잔 성모상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짠했다.

성당을 나와 러시아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넵스키 대로를 걸었다. 전통적인 바로크 양식과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에는 은행, 보험회사, 레스토랑, 기념품가게, 서점들이 지나는 손님들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부산의 광복동거리와 동광동 골목처럼 누구에게나 추억이 있을만한 거리에 푸쉬킨이 자주 들렀다는 레스토랑도 있었다. 또한 거리에는 미술작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거리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고 있었다. 멋있는 레스토랑을 뒤로 하고 가이드가 안내하는 뒷골목 허름한 곳에 위치한 식당에 가서 영양가 부족한 식사를 했다. 이제부터 풍성한 식탁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거리를 나오니 건물과 건물을 와이어로 연결하고 전주대신 와이어에 전선줄을 매단 것이 어려웠던 러시아 경제를 대변하는 풍경 같았다. 아니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일까?

오후에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겨울궁전)을 관람하였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는 공기를 들이 마

실 수 있으며, 모든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망라하는 걸작 속에서라면 오래 오래 넋을 잃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곳에 영원한 기억을 남긴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과 유명인사들, 역대 황제들, 궁신들, 장군들, 외교관들의 영정들이 훌륭한 예술작품이 되어 끝없는 회랑들을 장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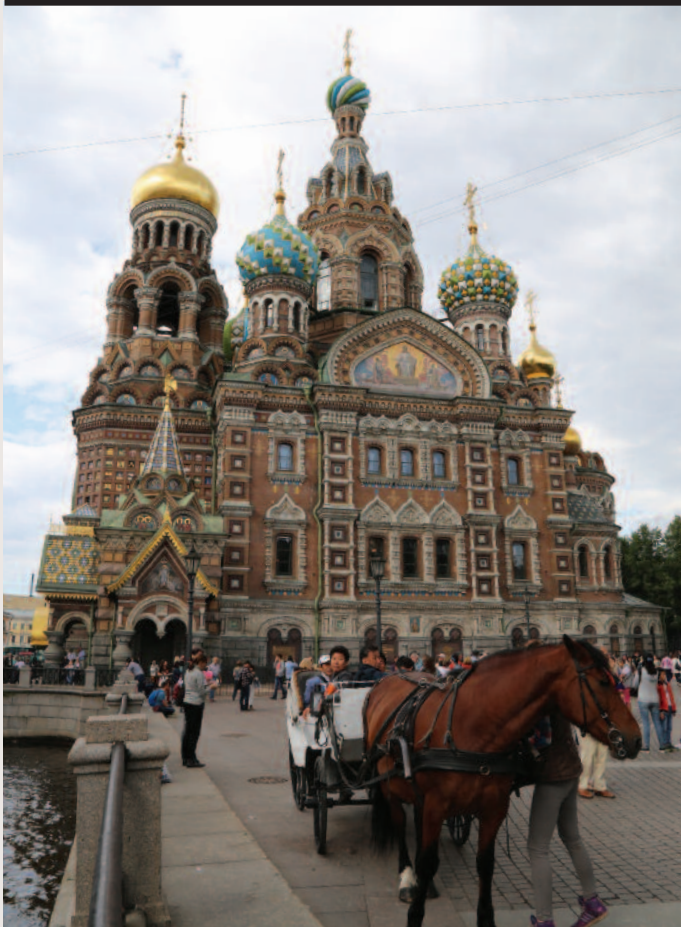
학교 다닐 때 미술책 속의 사진으로만 보던 고대 조각 작품, 네덜란드 회화 걸작들을 직접 보면서 “아~ 이래서 천재화가, 천재조각가라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르네상스시대라 하는구나.” 하며 감탄하였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혁명, 대화재, 약탈 등의 질곡을 거치며 오늘날 수년간 수천만의 관객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명작들을 감상하며 인류에게 예술·문화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느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가이드가 안내하는 기념품 판매점을 들렀다가 중국집 같지 않은 중국집에서 이상한 중국음식을 먹고 호텔에 투숙하였다.

Thursday
7월 9일

7월 9일 (목) 맑음

다음날 일정은 교외에 위치한 웅장한 황제의 여름 분수 정원 관람부터 시작하였다. 1710년경 축조된 페테르그프 궁전은 외부에서 조망하였는데 내부에는 30개에 이르는 홀들과 응접실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이 공간들을 금색이 칠해진 부조, 소





조작품, 그림, 상들리에, 거울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한다. 궁전 아래쪽으로 아름다운 분수들이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숲속에 각자 자리하고 있었다. 로마분수, 피라미드분수, 태양분수, 매니저분수, 언덕분수 등 분수들의 모양도 독특하지만 분수가 내뿜는 물소리 또한 독특하여 물의 심포니가 들리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 어떤 다른 분수보다 가장 장엄하고 웅대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페테르그프 궁전의 자랑인 '사자의 입을 찢는 삼손' 분수이다. 조각상의 예술성도 우수하지만 찢어지는 사자의 입에서 높게 뿜어 오르는 분수는 가히 창작예술의 압권이다. 우리는 오전에 관람하였는데 야간에는 붉은 조명을 비추어 붉은 피가 토하는 것으로 연출된다하니 가히 장관일 것이라 짐작되었다. 처음 조각상은 청동상으로 제작되었으나 근대에 조각 위에 금빛도장을 하여 그 화려함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여름 궁전 관람을 마치고 시내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였다. 러시아 귀족이 살았을 것 같은 집에서 식당영업을 하는데 커다란 홀마다 피아니스트가 있어 각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식사하는 동안 그 나라 음악을

들려주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일행 중 매너 좋은 분이 팁을 주니 음악은 더욱 흥겨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뱃머리 등대로 가는 도중 대학교 강변로에 잠깐 멈춰 스프링크스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 스프링크스 한 쌍은 테베에서 운반해 온 것이라 했다. 이동하여 바실리섬의 뱃머리 등대를 구경하였다. 뱃머리 등대는 해전기념탑으로, 원주를 장식하는 뱃머리 모형은 포로로 잡은 적군의 배를 상징한다. 광장 옆의 네바강변을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신혼부부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키스하는 장면은 참 이국적이라 사진을 찍고 싶어 다시 한 번 키스하라 하니 기꺼이 오랜 시간 키스신을 보여주었다. 그 신혼부부의 영원한 행복을 이 장을 빌어 기원한다. 신혼부부를 따라다니는 거리의 악사들도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표트르파블롭스키 요새를 관람하러갔다. 네바강의 오른쪽에 위치한 모래섬 위에 지어진 요새로서 성의 한가운데 표트르파블롭스키 대성당이 위치하고 강 중심부를 향한 연안은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져있다. 성당은 표트르 시대부터 러시아 황제들의 묘소 역할을 해왔다. 처음에 대포 300문이 장치되었던 이 성은 도시를 수호하는 믿음직한 보루였다. 그러나 성은 실제 전투에 참가한 적은 없고, 실제로는 러시아판 바스티유 감옥이 되어 러시아의 가장 무서운 감옥으로 악명을 떨쳤다.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유로입장을 시켜 돈을 받고 있었다. 그 성벽 아래쪽은 선남선녀가 수영복차림으로 선뎌를 즐기고 있었다. 19세기 말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암살당한 곳에 세워진 피의 사원외관을 관람하였다.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당을 옮겨 놓은 듯한 '피의 구세주' 성당은 러시아의 그 어떤 성당보다도 모자이크 장식이 풍부하다. 러시아 최고의 예술인들이 밑그림을 그려 만든 모자이크는 소련시대 철거를 모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성당에서 예카제리나 운하를 따라 넵스키 도로까지 걸어서 아이쇼핑 겸 풍치를 관람하였다. 몇몇 동반자들은 러시아 특산물인 여우털모자, 여우털목도리 등을 사며 흥정하는 즐거움도 느꼈다.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장소를 이동하여 네바강 하구를 운항하는 유람선에 탑승하였다. 유람선에서 민속공연을 관람하고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하였다.

7월 10일 (금) 맑음

Friday
7월 10일

이른 아침 4시에 기상하여 5시에 기차역으로 이동하였다. 7시에 모스크바로 출발하는 기차는 KTX급은 되어보였지만 속도는 다소 느렸다. 차창 밖은 넓은 평원이 이어졌으나 습지와 잡목 군락들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은 무슨 목적으로 이 머나먼 땅을 원정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시 20분 모스크바 역에 도착하여 러시아 전승기념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전승기념관은 1985년부터 10년간 건설하여 1995년 5월 전승 50주년을 기해 완공했다. 이곳은 과거 러시아 군대의 출



정식과 승리 후 귀환식 기념행사를 하던 곳으로 기념관 앞의 탑에는 게오르기라는 러시아 정교 승리의 신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격전지 이름이 조각되어 있다. 141.7m 높이의 탑에 승리의 여신이 조각되어 있는 모습이 구조적, 역학적으로 참 인상적이었다. 공원 앞 쪽은 길게 분수대가 뻗어 있는데 기념행사 때는 붉은 조명을 하여 희생 용사의 피를 상징한다고 한다. 개선문 앞에서 기념 단체 사진을 찍고 모스크바 지하철을 관광하였다. 지하 100m의 깊이로 자랑하지만 고유의 색상을 지닌 원석들로 모자이크 벽화를 조성하여 예술 도시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었다. 지하철 관광을 마치고 아르바트 거리를 관광하였다. 아르바트 거리는 푸쉬킨의 신혼집과 나탈리아 콘찰로바와 손잡고 서있는 동상이 서있다.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의 동상이 손을 잡고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손바닥이 닿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표현 한 것이라 한다. 여기서도 서양화를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분은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한 점 구매하였다.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그림이라 사모님과 Mrs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 일행 중 한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호텔로 돌아왔다. 일행들이 일심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여 큰 사고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Saturday
7월 11일

7월 11일(토) 맑음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웅장한 외관을 관광하고 모스크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참새언덕에 올랐다. 해발 115m라 하는데 산이 없는 모스크바에서는 주말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라 한다. 붉은 광장으로 향했다. 붉은 광장에서 자유 시간을 가지며 삼삼오오 사진을 찍고 성 바실리 성당 외관을 관광하였다. 광장에 인접

한 굴백화점은 러시아 국영 백화점인데도 세계 명품 매장이 다 들어와 있고 낮 시간인데도 제법 많은 사람이 붐볐다. 백화점을 나오니 스탈린과 푸틴 복장을 한 사람들이 관광객과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고 있었다. 멀리서 보니 실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크레믈린 궁은 14세기 ~ 20세기 사이 오랜 기간 건축되었고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 자연 유산으로 기록되었다. 크레믈린 궁의 형태는 대체로 외세에 저항하기 위한 요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원 광장에 위치한 우스벤스키 사원, 아르타겔스키사원, 12사도 사원, 황제의 대포, 이반대제의 종루 등을 외관 관람하였다. 사원들은 유명한 외국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 지어졌지만 러시아 고전 건축 양식을 따라 독특한 건축미를 갖고 있다. 사원 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근위병 열병식을 보는 기회도 가졌다. 공항으로 이동하여 모스크바를 출발하였다.

3. 일정을 마치고

김병철 회장님과 일행 모두 건강한 몸으로 산업시찰을 마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 갑작스레 아픈 분도 계시었지만 일행 모두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거치고 국가 부도를 맞았지만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도 문화가 융성하는 나라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17세기에 표트르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듯이, 우리나라도 뜻있는 지도자가 나와 선진국에 걸 맞는 사회기반 시설을 개조해서 후손들에게 영광스런 자산을 물려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여행을 함께한 일행 모두 사업번창과 가내행복을 기원하며 여행기를 마친다.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내일을 예측하고 1년, 2년, 3년 후의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식, 정보, 창조 시대에서는 그 예측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이 기초고 무엇이 표준일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에 그 변화의 속으로 함께 산책해 본다면 그 재미도 솔솔할 것이다.
 이게 공상이라도 좋다. 인류의 발전은 공상이 현실로 지속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3편 : 신소재 그래핀>

• 그래핀이란?

- 탄소원자로 만들어진 원자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로 흑연을 뜻하는 'Graphite'와 탄소가중결합을 가진 분자를 뜻하는 접미사 '-ene'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이며, 생산 방식에 따라 그래핀 플레이크(Flake)와 CVD 그래핀으로 구분되며 응용분야도 생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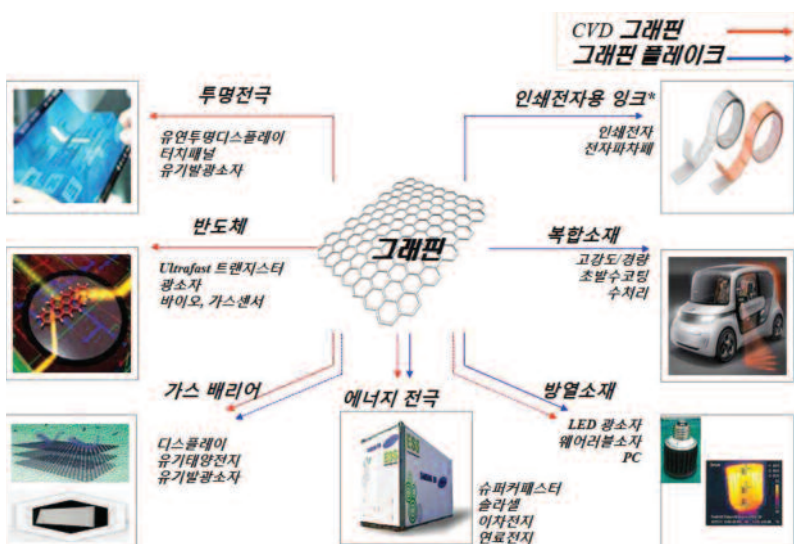
- 그래핀은 현존하는 소재중 특성이 가장 뛰어난 소재로써 두께가 0.2nm로 얇아서 투명성이 높고, 상온에서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보다 100배 빨리 전달할 수 있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전도성이 높으며, 탄성도 뛰어나 늘리거나 구부러도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그래핀은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는 탄소나노튜브를 뛰어넘는 소재로 평가받으며 '꿈의 나노물질'이라 불린다.

□ 그래핀 플레이크

흑연 결정으로부터 그래핀을 박리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할 수 있어 복합재료, 방열소재, 전자파 차폐 등에 응용 가능

□ CVD 그래핀

고온에서 탄소를 가스화하여 금속표면에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되며 대면적·고품질의 그래핀 제작이 가능하여 투명전극, 차세대 전자소재, 에너지용 전극 소재 등에 응용 가능





• 그래핀 활용분야

1. 디스플레이 산업

그래핀은 얇고 신축성을 겸비하여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휴대가 간편해진다.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주로 쓰이는 소재인 인듐주석산화물의 구부리면 깨지는 단점이 보완 가능하여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투명디스플레이는 물론 입는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이다.



▶ 접이식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그래핀 투명전극(출처:성균관대학교)

2. 에너지 산업

기존 폴리실리콘보다 전자의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데다가 투명하고 구부릴 수 있는 특징까지 있어 결정형 제품을 밀어내고 박막형 태양광 발전이 대세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지붕이나 유리창 등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박막형으로 설치하는 태양전지에 활용될 경우 발전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설치 가능한 면적도 늘어나 태양광의 가정용 전기 대체를 촉진할 전망이다.

3. 복합소재 산업

초경량 고강도의 자동차 외장재나 항공기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핀 나노섬유로 웨이트 배분 및 라켓 중앙부분 중량을 감소시켜 테니스 라켓을 제조하거나, 그래핀 소재로 해빙 성능을 높이고 그래핀의 높은 투과율을 이용해 담수화 필터를 만드는 등 비행기 날개에도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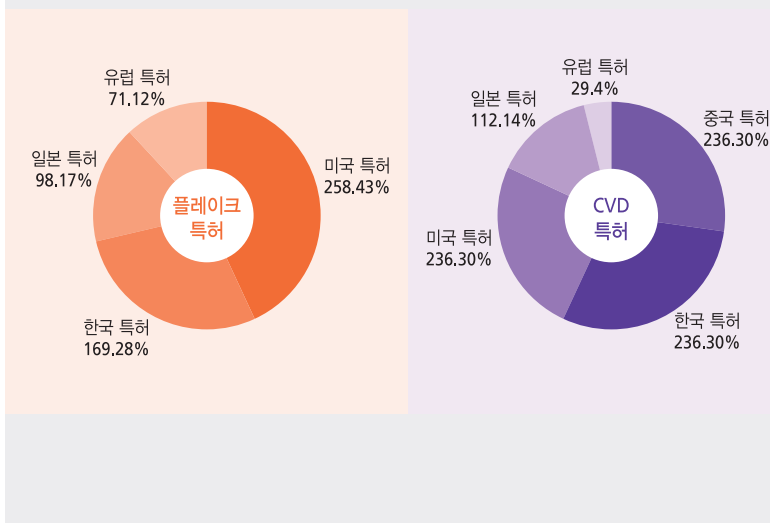
우리나라 그래핀 시장규모

- 우리나라는 그래핀에 10여년 이상의 연구투자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세계 1위~2위)과 충분한 수요기반(휴대폰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등)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도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품질의 그래핀을 저가격 · 연속적으로 양산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그래핀 응용제품의 상용화까지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품질 그래핀을 응용한 인쇄전자용 잉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그래핀 응용제품의 시장형성 가시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경제적 측면에서는 2017년 전자파차폐 코팅제 분야에서 첫 매출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에너지전극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시장 선도형 일등 제품을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2025년 매출 19조원, 약 5.2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출원 동향>

- 플레이크 특허는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전체 특허의 43%를 점유, 미국이 그래핀 플레이크 생산기술을 주도(한국출원 특허 28%)
- CVD 특허는 '09년부터 출원이 급증하였으며, 한국출원 특허 점유율이 30%로 기술을 선도하고 미국(25%) 및 중국(27%)이 그 뒤를 따름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검토



박 선 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홍 성 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하여 종합·전문건설업간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수행됨.

1. 소규모 복합공사의 의미와 가치

1) 건설산업기본법

□ 우리 건설산업에서 소규모 복합공사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및 Smart 발주자 육성,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안전 및 편의 증대, 전문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있음.

-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발주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발주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소규모 복합공사에서는 많은 비용이 공사비에 투입되어 공사품질이 양호하므로, 정부가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를 조속히 확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소규모 복합공사를 통해 전문건설업체가 충분한 공사관리 및 시공 역량이 배양된다면, 일류 전문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하는 히든 챔피언 전문건설사로 성장할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계수가 종합건설업보다 높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높음.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가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215억 원의 부가가치와 2,277명의 고용이 추가 창출될 것임.

2.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쟁점 검토

1)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규제 개선인가?

□ 소규모 복합공사는 건설업 등록체계를 위배하고 영업범위 상의 예외사항은 아님. 또한 일방향 비대칭적 규제이나, 공익이 크므로 규제 기요틴 목적에 부합됨.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는 규제 개선에 해당됨.

- 복합공사 여부에 따라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 필요성이 결정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복합공사가 도입된 것임. 즉, 잘못된 영업범위를 바로 잡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조치임.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 시장이 확대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이나, 불합리한 영업범위 개선, 부가가치 추가 창출, 일자리 만들기 등의 공익이 크므로, 규제 기요틴의 대상임.

2)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의한 종합건설업계 영향은 큰 것인가?

□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가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발주자의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보수적 판단으로 인해 실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소지가 적음. 이로 인해 종합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복합 전문공사 수가 증가하여 공종간 연계가 많아지고 품질·안전 중요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사관리 리스크를 회피하고자하는 발주자 경향으로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 필요성을 크게 인식함.

• 더욱이 민간 발주자 경우에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인지 및 이해도가 매우 낮아, 실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편임.

3)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되나?

□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가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시, 중소 종합건설업체에 미칠 영향은 일부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함.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전문건설업체 역시 중소기업임.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형 전문건설업체는 많은 공사를 수행하므로, 다른 전문건설업체보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종사자 수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모든 대형 전문건설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임.

4)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나?

□ 전문분야의 시공능력과 계획·관리 및 조정 능력을 전문건설업체는 이미 보유하고 있음.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가능 업체(2개 이상 업종 등록 업체)는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경영상태가 좋으며, 자본금과 기술자도 양호한 수준임.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 역량 보유에 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함.



5) 기타

□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이 불필요한 공사로, 공종간 연계가 적고, 품질·안전의 중요도가 낮은 공사를 의미함. 발주자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품질·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공사는 제외될 것이므로, 안전 위험성 및 부실시공이 증가하지 않음.

□ 전문건설업체는 수급 또는 하수급 시 100%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하도급이 가능한 종합건설업체보다도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큼.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시 종합공사보다 부가가치와 고용이 추가 창출되므로, 거래비용의 절감효과가 보다 커짐.

□ 직접시공 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운영결과,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약 7배(종합 168건, 전문 24건)에 달하는 직접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현실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의무를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정책적 시사점

□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종합 및 전문건설업간 많은 쟁점이 있으나,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대부분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는 건설산업 측면에서 유용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요구됨.

• 불필요한 규제 철폐(규제 기요틴)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신규 회원가입 업체 소개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거평건설 김 영 규	부산 금정구 금샘로 561-1 2층(남산동) T : 051-512-7828 보유업종 : 토 공 철근 · 콘크리트	 (주)경원건축디자인 지 용 준	부산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65 (당감동) T : 051-817-8727 보유업종 : 실내건축
 광명환경(주) 이 광 식	부산 북구 금곡대로303번길 94 705호(화명동, 더누림오피스텔) T : 051-362-6919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주)금강이엔지 조 현 문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7-5 2층(구서동, 동남빌딩) T : 051-517-3600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다통 박 지 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71 301호(중동, 솔레비치오피스텔) T : 051-505-3651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동남산업개발 이 상 철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16 1408호(전포동, 한신백오피스텔) T : 051-811-1424 보유업종 : 토 공
 (주)디자인단 장 병 권	부산 수영구 수영로510번길 57 3층(광안동) T : 051-751-5662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디팩토리플러스 손 익 순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14 3층(동대신동3가) T : 051-244-9841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보화이엔지 이 승 민	부산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87 (서동) T : 051-701-0888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주)비엠 배 미 애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 7 3층(온천동) T : 051-557-8801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석경 심 채 영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94 상가105호(중동, 동일아파트) T : 051-744-1217 보유업종 : 실내건축	 성지기업 이 명 숙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422 (삼락동) T : 051-305-5252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주)시운 박 재 태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10-1 (초읍동) T : 051-804-7686 보유업종 : 상 · 하수도설비	 (주)신동디지털 장 철 순	부산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 (초량동) T : 051-461-5000 보유업종 : 수 중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오능건설(주) 강 철 순	부산 강서구 대저로155번길 15 (대저1동) T : 051-507-7867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용민건설 홍 민 정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134번길 34 1214호(연산동, 경보이리스힐오피스텔) T : 051-853-5010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철근·콘크리트
 우리토양기술(주) 심 동 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50 402호(부곡동, 금정빌딩) T : 051-513-8045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이연건설 하 정 범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 369 2층(안락동) T : 051-554-3301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주)일군 김 선 미	부산 북구 낙동북로 736, 605호 (구포동, 유림노르웨이숲상가) T : 051-337-2700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태성이엔씨 김 병 표	부산 연제구 세병로 5, 에이동 점포13호(연산동, 새연산아파트) T : 051-852-5656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해창건설산업(주) 김 수 용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곡길 14 T : 051-728-9095 보유업종 : 토 공 철근·콘크리트	 (주)한디자인 김 시 환	부산 동래구 금강로 157 505호(온천동, 정우시티빌) T : 051-555-3533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효석디앤씨 김 재 영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24 601호(거제동, 양현빌딩) T : 051-504-2225 보유업종 : 실내건축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5. 7. 1 ~ 9. 30〉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덕보건설 (대표 : 조한철, 남기철, 서울)	(주)디비아아이디앤씨 (대표 : 한성경, 경남)
(주)동명건설산업(대표 : 이경희, 세종)	디자인그룹제네시스(주)(대표 : 유동훈, 서동호, 충남)
동일조경(주) (대표 : 이명희, 울산)	(주)만진이앤씨(대표 : 노금석, 충남)
삼광건설(대표 : 권미숙, 울산)	삼일건설(주)(대표 : 박중윤, 경북)
(주)스토즈(대표 : 이태호, 경기도)	(주)성환이앤씨(대표 : 백춘희, 경남)
(주)신영기업 (대표 : 김재남, 경남)	아림건설(주)(대표 : 김성주, 충북)
조광건설(주) (대표 : 전용도, 경남)	(주)윤성건설(대표 : 김선자, 경북)
진영종합건설(주) (대표 : 조덕래, 경남)	정한건설(주)(대표 : 이순득, 충북)
(주)찬영건설(대표 : 송미정, 서울)	(주)해송건설(대표 : 조용욱, 서울)
(주)컬쳐이앤씨(대표 : 박용면, 서울)	
(주)태경산업개발건설 (대표 : 이경근, 경남)	
한성기업(주) (대표 : 정동섭, 이홍열, 서울)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5. 9. 30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3	55	남구	94	132	북구	71	97
동구	62	131	금정구	206	312	사상구	102	128
서구	26	30	연제구	128	193	강서구	131	180
사하구	67	84	해운대구	193	278	기장군	174	270
영도구	23	34	수영구	97	140	합계	1,744	2,563
동래구	179	236	부산진구	168	263			

건설용어 바로쓰기

올바른 우리말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언어표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건설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식 표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현장에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주 사용되는 잘못된 일본어식 건설용어들은 알아보고 바른 우리말 표현을 정리해봤다.

건설용어			
일본어	우리말	일본어	우리말
가나모노	철물	쓰미	벽돌공
가네	직각, 직교	쓰지(스데바)	사토장
가네가다	금형	렝가	벽돌
가랑	(수도)꼭지	마끼까이	되감기
고다다끼	잔다듬	마도와꾸	문틀, 창틀
고야	헛간, 작업반의 숙소	마지까리	칸막이벽
기고데	나무흠손	메꾸라	메꿈
나까누리	재벌바름, 재벌철	멘도리	모접기
네지	나사	무시로	거적
노강	토관	반생	굵은 철선
노끼	처마	아까렝가	붉은벽돌
노보리	비계다리(노보리)	아다마	머리
니까이	두 번	야기리	축벽
니뿌리	니플	오갓다	대형 와이어커터
다데구	창호, 창문의 총칭	오삽	평삽
다이까렝가	내화벽돌	오오가네	큰직각자
다이꼬바리	양면 붙이기	우마	발판대
다이꾸	대목	우와깁	상부근
덴고	지렛대	우아누리	정벌 바름, 정벌철
데마짱	품삿	유니온	이음새
덴쥬오	천장	이모메지	통 줄눈
도와꾸	문틀	이승	한치
사시코미	꽃이쇠	쥬오기(조방)	경첩
사시깁	이음근, 삽입근	짱가	침하
세끼자이	석재	쿠사비	빼기
쇼꾸닝	기능공	하도메	괘
스데공구리	버림 콘크리트	하바	폭, 넓이
시다누리	초벌 바름, 초벌철	하시라	기둥
시메	조이기	히사시	차양
쓰마(쓰라)	가장자리	후미당	현관 디딤바닥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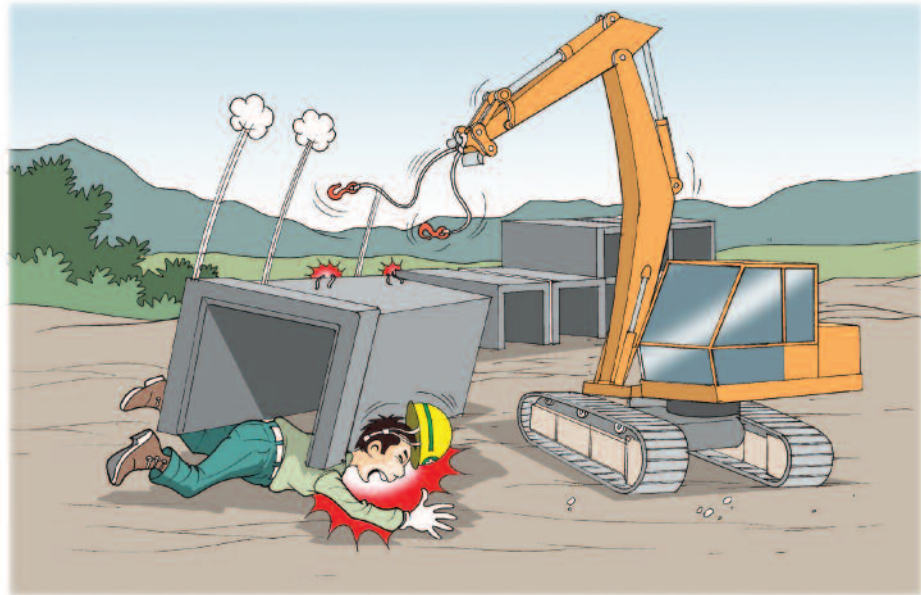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백호우로 판로 운반작업 중 판로 낙하로 피재자 협착

공사명	은봉2지구 수해복구공사	발생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6:30경
재해형태	협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공사규모	관로 연장 L-275m

재해개요
백호우로 운반하던 수로관의 양중용 고리(철선)에서 줄걸이(와이어로프)를 풀어주기 위해 하역위치에서 대기하던 중 수로관의 양중용 고리(철선)가 끊어지면서 지면으로 낙하하여 바닥에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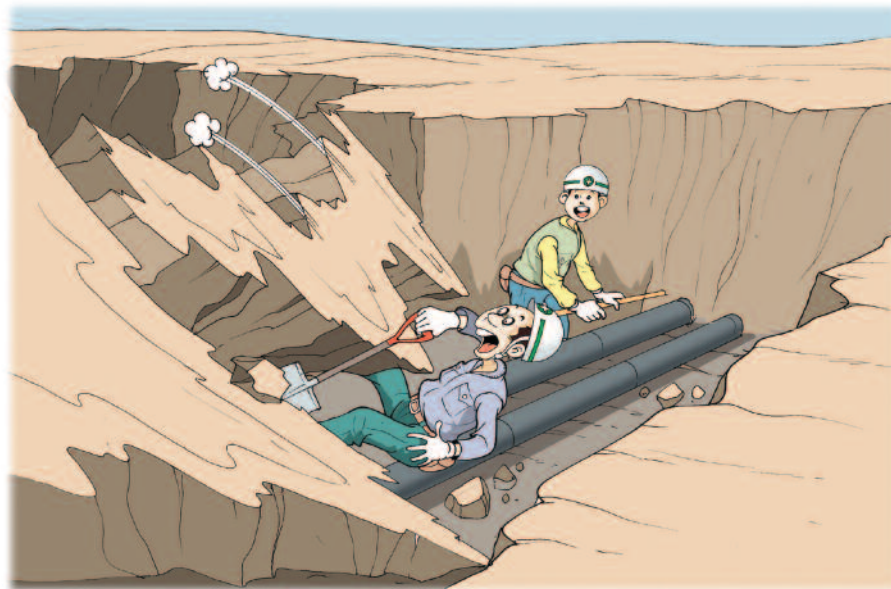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양중하는 경우에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준수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작업방법 및 중량물취급시 안전대책 등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수립
-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
- 백호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면을 굴착하는 작업의 주용도로 사용

파형전선관로 파손구간 보수를 위한 터파기 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

공사명	○○택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발생일시	2013.12.17(수) 10:00경
재해형태	붕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동	공사규모	관로굴착 : 20,478m 케이블 설치 : 129,897m

재해개요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동 소재 ○○택지 배전간선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매설된 파형전선관로(Ø175mm) 파손구간에 대한 보수를 위해 굴삭기(0.6m3)를 이용한 굴착작업 후 근로자 2명이 터파기 저면(깊이 약 2.2m)에서 삽을 이용하여 파형전선관로 사이의 잔토 제거작업을 하던 중 터파기 사면의 토사 일부가 붕괴 되면서 피재자 ○○(31세, 남, 인부)의 허반신이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지반의 지질상태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붕괴위험 방지조치를 철저
-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흙막이보강 등을 설치하여 붕괴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 ~ 1 : 1.5
	건지	1 : 0.5 ~ 1 : 1
암반	풍화암	1 : 0.8
	연암	1 : 0.5
	경암	1 : 0.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제1항 별표1]

나의 공장을 가져가고
차를 부셔도 좋다.
다만 나에게서 포드 사람만
빼앗아 가지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지금의 포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창업 회장

인재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난 앞뒤 가리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할 것이다.
인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염치를 무릅쓰고 아부하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겠다.

나폴레옹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지난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제21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건협의 이번 수상은 지난 1977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전문건설업 통계조사를 1986년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수립에 필요한 건설산업 통계를 적시에 생산·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통계 제공을 통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 2015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행사명
2015.11.20.(금)~11.24(화)	전건회 해외원정
2015.12.15.(화)	2015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최용택 사원

대 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의 코스카레터를 항상 흥미롭게 보고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도시철도 건설 및 공사업무를 같이 하고있어 코스카레터가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아무래도 발주 및 감리 계약등 다양한 업무를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매번 변경되는 법령을 챙겨보기 힘들었는데 코스카레터에 있는 주요법 개정 및 주요내용등을 한눈으로 볼수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카레터 5호에 있는 신기술소개 중 금형펀칭 스테드(르-스테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건식벽체 시공공법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쉬어가는 페이지를 마련하며 지루하지않고 편안하게 볼수 있게 구성도 알찬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코스카레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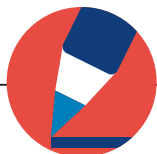
(주)대가건설
정현정 과장

신 설회사로서 협회가 하는 일을 잘몰랐는데 코스카레터를 봄으로써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다방면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인들을 위해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주)미담건축
박미진 과장

건 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에 관한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건설업체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인 부분들에 관해 물려서 답답하고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독자퀴즈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푼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파인트리 **지영미** 대리
- (주)거암디엔씨 **천미애** 실장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1억원, 4천만원

Q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등의 사유 발생시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6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자치부에서는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상기 규정을 2015. 7. 20일자로 개정·시행【행정자치부예규 제23호, 2015.6.23.】하였으며, 개정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의 수의계약 참여제한기간을 몇 개월로 단축하였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 (기간 : 2015. 11. 30(월)까지)하시면 추첨하여 (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ww.ftc.go.kr

“하도급 ·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으로도 제보하세요!

익명제보

- ▶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하세요.

• 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 · 유통 익명제보센터 에 제보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사단계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추정되지 않도록 조사시기, 조사범위를 신속적으로 조정합니다.

- ※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보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중 △하도급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실명으로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피제보자에게 이미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타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센터 문의 : 044-200-4593

실명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 하도급 ·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고 싶을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온라인 신고 : 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 서면 신고 :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

연락기관	담당지역 및 업무	연락처
종합상담실	하도급법 질의 및 진화상담	044-200-4010
서울사무소 제2하도급과 · 건설하도급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02-2110-6161~7 02-2110-6144~9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460-1041~5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062-975-6841~4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대전, 충남북, 세종지역	042-481-8018~20
대구사무소 하도급과	대구, 경북지역	053-230-6341~4

- ▶ 하도급 · 유통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 www.kofair.or.kr)
-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협의회(02-2124-3132, www.kbiz.or.kr)
- 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02-549-2105~6)
- 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정책부(02-3284-1088)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